

배달앱 아르바이트, 어떻게 볼 것인가?

— 배달 아르바이트 고용 및 노동실태를 중심으로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배달앱 아르바이트, 어떻게 볼 것인가?¹⁾

- 배달 아르바이트 고용 및 노동실태를 중심으로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문제제기

○ 배달업 고용관계 변화 - IT, 모바일 앱 발전

- 과학기술과 IT산업의 발전으로 산업구조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특히 배달업에서도 전통적인 전화주문 방식의 오프라인 방식이 아니라, 모바일 앱(APP) 방식의 온라인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음. 실제로 주요 대중 매체들에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주요 온라인 배달 서비스 업체의 CF 광고들을 일상으로 접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음.
- 국내 배달시장은 온라인 배달앱 시스템을 통해 고객을 유치해 오프라인으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기반의 배달업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몇몇 소수의 배달 업체들이 자본력을 기반으로 시장 독과점 형태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임. 현재 기존 배달업체가 아닌 신종 배달 및 배달중개업체 출현과 맞물려 해당 업체 소속 배달 종사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 주요 신종 배달 업체와 배달중개업체는 배달형태와 유형을 중심으로 △배

* 이 발표 자료는 서울시 청년정책관 연구과제로 수행된 <2015년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실태조사>(김종진, 박기산, 안소정, 윤자호) 보고서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며, 보고서 구성은 △배달 산업구조와 특징, 배달산업 노동시장 실태, △신종배달 및 배달중개업 사례조사, 고용구조와 노동조건(3장), 배달 아르바이트 설문조사 결과 분석(4장),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의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향(5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달주문중개(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 114, 배달 365, 메뉴박스, 디톡), △ 음식 배달대행(나눔콜), △배달주문 및 대행(푸드플라이, 배민 라이더스), △토탈 배달대행(땡땡, 배달요, 바로고몰), △배달인력중개(일당백) 5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배달주문과 배달대행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업체를 하나로 묶을 경우 4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

- 문제는 배달업 노동시장의 변화는 고용관계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임. 최근 새로운 배달 업체 및 중계업체의 종사자들이 전통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아닌, 새로운 계약 방식을 체결하거나 혹은 묵시적 새로운 계약방식이나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는 형태로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이 새로운 계약 방식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독립사업자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로 구분될 개연성이 높음.
- 이러한 새로운 계약방식을 통한 종사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은 물론 사업장에서 계약존속 보호, 보수 지급 보호, 산업안전보건, 구제신청, 권리분쟁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실제로 2013년 신종 배달대행업체 소속 아르바이트 고등학생(월 35만원)이 보행자와 충돌하여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5.9.17. 선고 2014구합 75629 판결)을 한바 있음.

○ 새로운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의 조사

- 현재 배달업을 통한 국내 배달 노동시장의 산업구조나 실태, 고용구조, 노동환경에 대한 연구조사는 전무한 실정임. 이에 기존 배달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고용관계와 노동환경 뿐 아니라, 신종 배달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되었음.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 권익보호협의회(2015.4)에서 2015년 실태조사의 주요 대상을 배달 아르바이트로 결정하고 연구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음.

- 이 글은 위에서 기술된 실태조사에서 출발하게 되었음. 첫째, 우리나라 배달 아르바이

트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둘째, 새로운 배달대행업의 시장과 주요 기업은 기존과는 다른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나? 셋째, 만약 새로운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기존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 제기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검토하는 이유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신종 배달 및 배달중계업체의 불안정한 고용관계의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등한 권리를 받아야할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 노동현장의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임.

2. 신종 배달 및 배달 중개업 실태와 특징 - 사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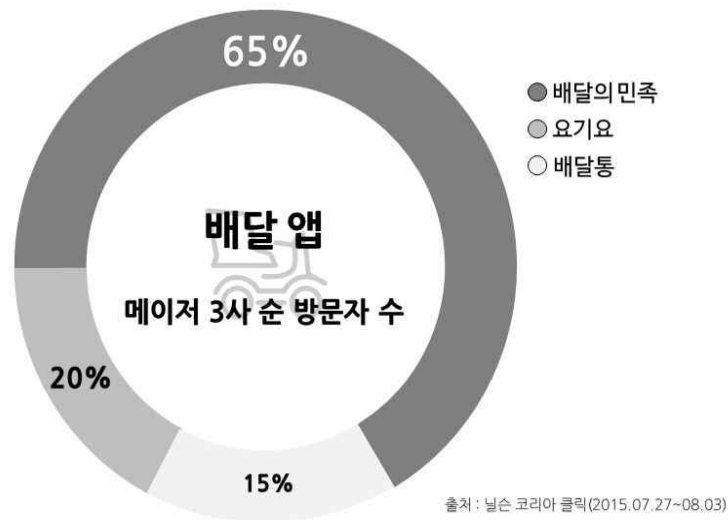
1) 신종 배달업 및 배달 대행업 현황

(1) 신종 배달업 등장과 배달산업 환경변화

□ 배달앱 등장과 신종 배달업¹⁾

- 국내 스마트폰 앱 기반 배달주문중개 서비스는 2010년 배달통이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 2011년 '배달의민족'의 등장 이후 신종배달업의 성장이 본격화 됨.
배달앱의 서비스형태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이며, 정보기술(스마트폰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의 소비자와 음식점을 중개하는 업종으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로 분류되기도 함. 배달주문을 중개하는 업체들은 앱을 통해 배달음식점 광고효과를 일으키는 것과 주문량을 늘려주는 것을 대가로 배달음식점인 가맹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앱 상에 노출하는 광고비를 받아 수익을 창출.

[그림 2-1] 배달앱 3사 순 방문자 수



1) 배달앱 등장 5년...급성장의 '명과 암'(연합뉴스 2015.5.10.)

- 배달 앱 다운로드 건 수는 4천만 건에 육박하며, 월 5백만 명 이상이 배달앱을 이용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함.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개사가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이상을 점유. 업계 시장점유 순위는 연간 매출액 기준 배달의민족(연 300억원), 요기요(연 200억원), 배달통(연 100억 원) 순임.
- 2014년 배달 앱 시장규모는 1조원 대를 넘었으며, 2015년 2조원 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후발 배달 앱 진입 자들의 가세도 과열되는 양상을 띠. 주요 3사 이외의 나머지 시장 점유는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 배달365 등이 나눠가지고 있는 상황임.
- 신종 배달업인 모바일 배달업은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소비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변에 있는 배달음식점을 손쉽게 검색하여 바로 배달주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배달 앱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과 배달주문 선택의 폭 증대효과로 배달 앱은 그 등장과 함께 이용 고객 및 가맹점 업소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음.

□ 배달산업 환경 변화

- 신종 배달 주문 앱의 서비스 체계는 모바일 이용 빈도가 높은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물품제공의 장점이 있음. 하지만 주문채널이 배달주문 앱으로 통합되면서 배달 음식점업자들은 매장운영을 위해 주문중개 앱과 가맹을 맺지 않을 수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됨.
- 음식점 매출은 '주문'에서 발생되기에 영세 음식점 주들의 입장에서 산업 구조적으로 가장 갑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주요 주문 앱 3사로, 기존 음식점 주들 주문수수료가 가중하다고 호소하기도 함. 주요 주문 앱 3사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배달음식업 협회 자체에서 주문중개수수료 0%에 월회비 1만 5천원으로 운영하는 주문 앱 '디톡'을 개시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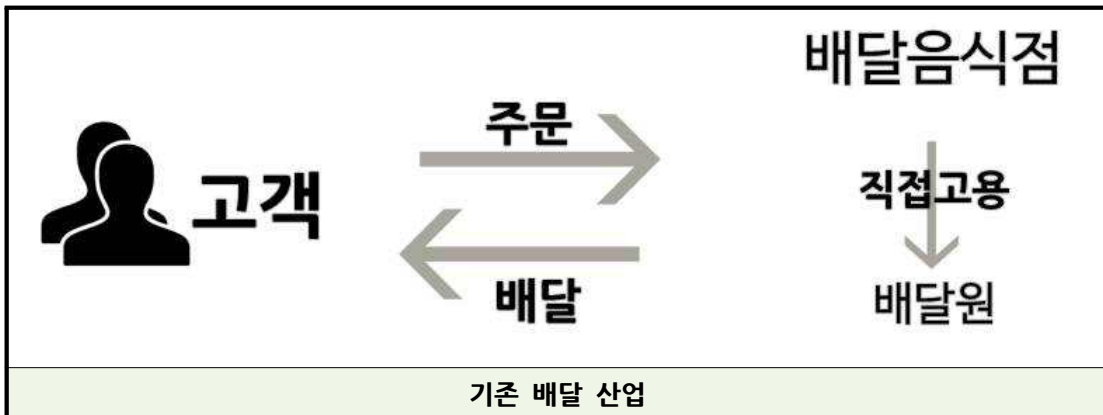
- 주요 3사 주문 앱 업체들은 가맹점 대상 수수료를 인하했고, 가맹점과의 자체 상생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기도 함. 배달의민족은 가맹점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오토바이 안전교육 및 가맹점주 대상 성공업소 비결 강의 지원. 요기요는 보유하고 있는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맹 점주들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가맹점주 작은 소원을 이뤄주는 ‘사장님 희망배달 캠페인’ 등 진행.

(2) 신종배달업 서비스 형태와 서비스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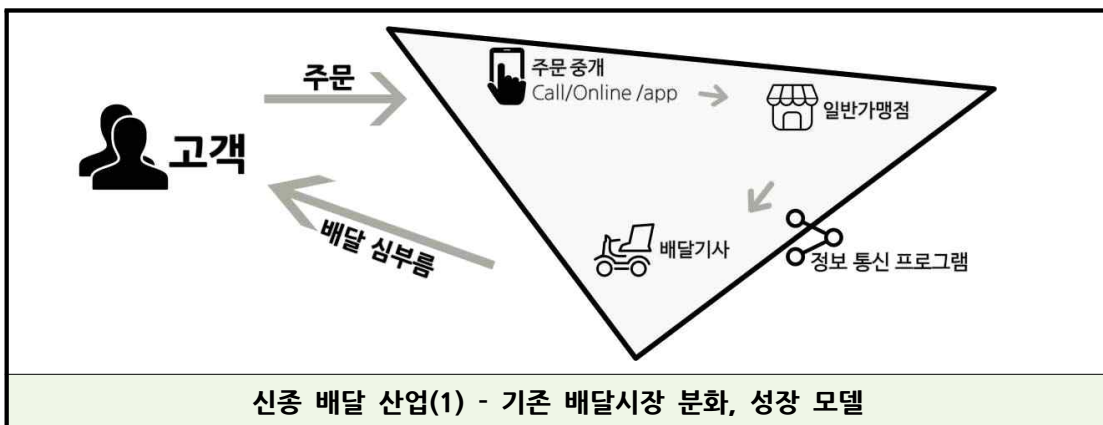
□ 신종 배달업 서비스 모델과 경로

- 기존에는 배달음식점이 ‘배달 주문접수-배달음식 조리-배달’서비스 등 배달산업 전 과정을 담당했음. 하지만 최근에 O2O서비스 중심의 모바일 음식주문중개 산업의 확대로 배달과 관련된 각 서비스 과정이 ‘배달 주문 중개앱-가맹음식점-가맹음식점 또는 배달대행업체’에 각각 담당되는 구조로 변함.

[그림 2-2] 기존 배달업 서비스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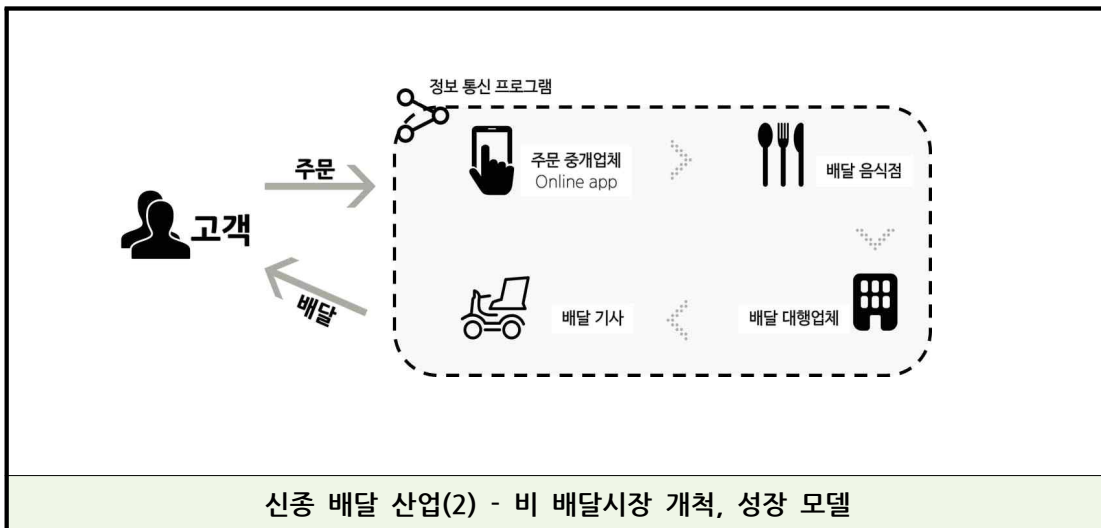


[그림 2-3] 신종 배달업(1) 서비스 경로



- 기존의 배달음식점의 역할을 분화시켜 신종시장을 형성시킨 신종배달업은 배달주문 접수 단계에서 시장을 형성한 ‘주문중개업’과 음식배달 단계에서 시장을 형성한 ‘배달대행업’으로 나뉨. 신종 배달 시장에서는 하나의 배달에 여러 주체가 참여함. 배달서비스의 각 과정에 참여하는 각기 다른 업체들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배달관련 정보를 주고받음.
- 주문중개업체는 직접 배달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지 않으며, 실제 배달서비스를 수행하는 배달음식점이나 배달대행업체와 배달원이 근로관계를 맺게 됨. 기존 배달업에서 파생된 신종배달시장 외에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기존에 배달서비스가 없는 음식점에 배달주문중개와 배달대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종시장을 형성시킨 형태도 있음.

[그림 2-4] 신종배달업(2) 서비스 경로



- ‘배달주문 + 배달대행’을 같이 제공하는 이들 업체는 음식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일상 심부름 등 음식배달 외 토탈 개인 심부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나뉨.
- 두 번째 신종배달업 서비스 모델에서는 주문중개와 배달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한 곳으로 수렴되면서 하나의 배달에 참여하는 시장참여자가 음식점과 ‘주문중개+배달’ 업체로 더 단조로워짐. 하지만 역시 배달서비스 전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직접 지시’가 아닌 정보통신기술 기반 프로그램으로 배달 정보를 주고받음.

□ 신종 배달업 유형

- 신종배달업은 기존 배달시장에서 파생된 유형과 기존 배달시장에 편입되지 않던 시장을 개척한 유형으로 나뉨. 여기에 신종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주문, 배달)과 서비스 지역(전국, 지역), 서비스 범위(음식, 토탈)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화 가능.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내용 중심으로 ①배달주문중개업, ②배달대행업, ③배달주문중개 + 배달대행업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함.

<표 2-1> 신종배달업 형태 분류

	신종 배달 산업(1) -기 배달시장 분화, 성장 모델		신종 배달 산업(2) - 비 배달시장 개척, 성장 모델		배달인력중개 (배달사업장·배달업)
	① 배달주문 중개	② 배달 대행	③ 배달주문+배달대행		
			음식	토탈	
지역			푸드플라이	핑동	
전국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114, 배달365, 메뉴박스(G마켓), 디톡	나눔콜	배민(배달의민족)라 이더스	배달요,	일당백

① 유형1=배달주문중개 :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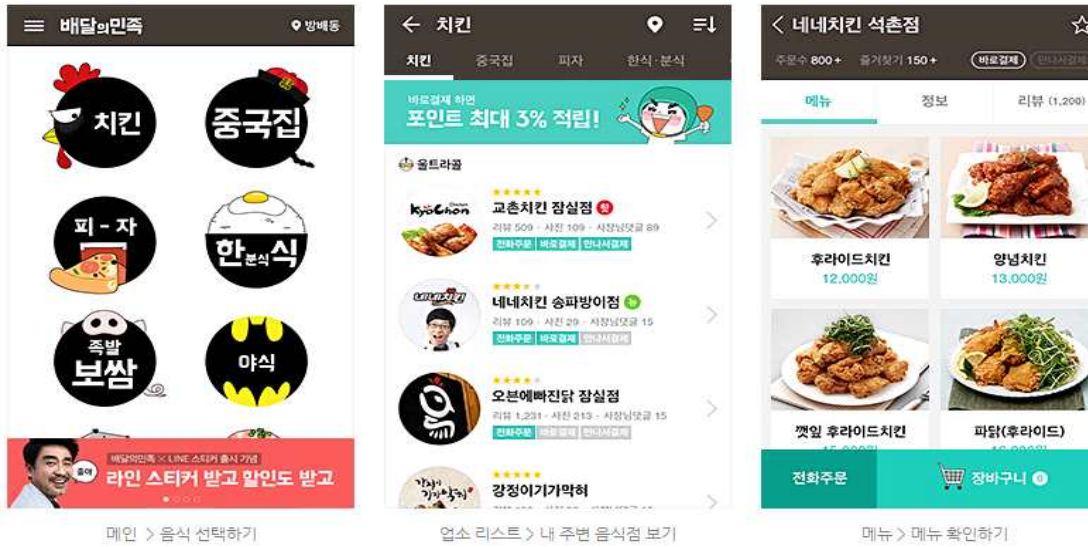
- ‘배달주문 중개’는 고객이 배달 앱을 통해 원하는 배달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순히 중개하는 것을 뜻함. 대표적인 앱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yogiyo), 배달통(bdtong) 등이 있음.

□ 배달의민족

- 2010년부터 어플 개발 및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2년 바로결제 서비스를 실시, 당시 월간 주문량 200만 건을 돌파하였으며, 배달의민족 앱 다운로드 수는 1,900만을 돌파(2015년 기준)하였음.
- 전국적으로 등록된 배달음식점 업소 수는 약 15만개,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월별 리뷰 수는 평균 30만에 이르며, 월 평균 주문량 520만 건(2014년 10월 1주 닐슨코리아 클릭 기준, 배달의민족 홈페이지)으로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림 2-5] 배달의민족 서비스 화면

서비스 미리 보기



자료 : 배달의민족 홈페이지(www.baemin.co.kr)

□ 요기요

- 요기요는 2012년 6월 서비스를 시작으로 빠르고 간편한 온라인 배달음식 주문 서비스를 추구함. 유럽 최고 배달음식 주문서비스 딜리버리 히어로(Delivery Hero)의 한국 브랜드임. 원하는 음식점 어느 곳이든 일정 수준의 월 고정비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을 우위로 동종업체들과 차별화를 두고 있음. 또한 매일, 매월 다양한 할인과 혜택의 통합 포인트 프로모션 적용을 통해 소비자의 지속성을 유도함.

[그림 2-6] 요기요 서비스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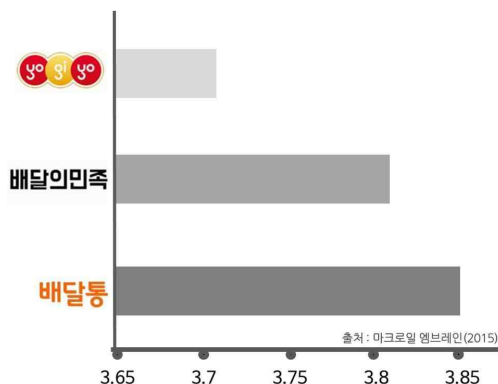
출처: 요기요 홈페이지(www.yogiyo.com)

- 요기요는 주로 배달음식 주문서비스 형태를 띠고 있음. 요기요 자체에서 배달대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요기요는 자체 콜센터를 운영하여 요기요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 배달음식점에 주문해주는 방식을 취함. 이로 인해 배달시간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음.
- 요기요는 배달지연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2012년 9월 주문 자동화 서비스를 도입을 시작으로 2014년 별도의 단말기를 보급해 주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함. 주문 자동화 시스템 구축 이후, 콜센터를 거치지 않고 주문전용 단말기를 통해 배달 가능여부와 배달 소요시간이 바로 확인되고 고객에게 가능여부 및 배달시간이 안내됨. 요기요는 전화통화 없는 주문, 도착알림 메시지 기능, 클린리뷰 등을 강점으로 현재 주요 배달 앱의 2위를 점유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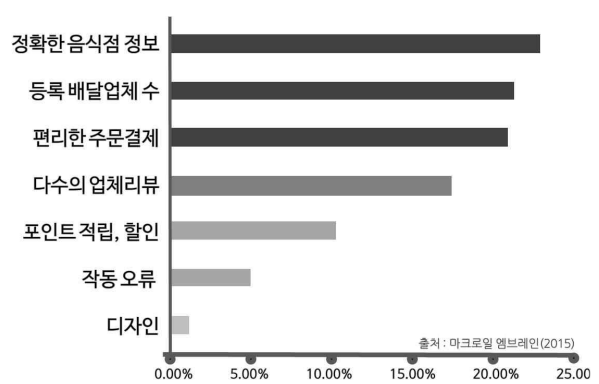
□ 배달통

- 배달통은 배달음식 주문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2010년 4월 세계 최초로 배달 앱 서비스를 실시, 경쟁 업체와 달리 소비자의 편의 확대, 배달 업체 수 1위의 자부심으로 경쟁 업체와 경쟁 중. 배달 업체 등록 수는 22만개로 배달 앱 중 최대 규모임.
- 주로 이용하는 ‘배달 앱 만족도(마크로밀 엠브레인 조사 2014년 7월)’에서 배달통이 5점 만점에서 3.83을 획득해 1위를 차지, 선호하는 이유로 간편한 결제시스템과 내 주변 추천 맛집 기능이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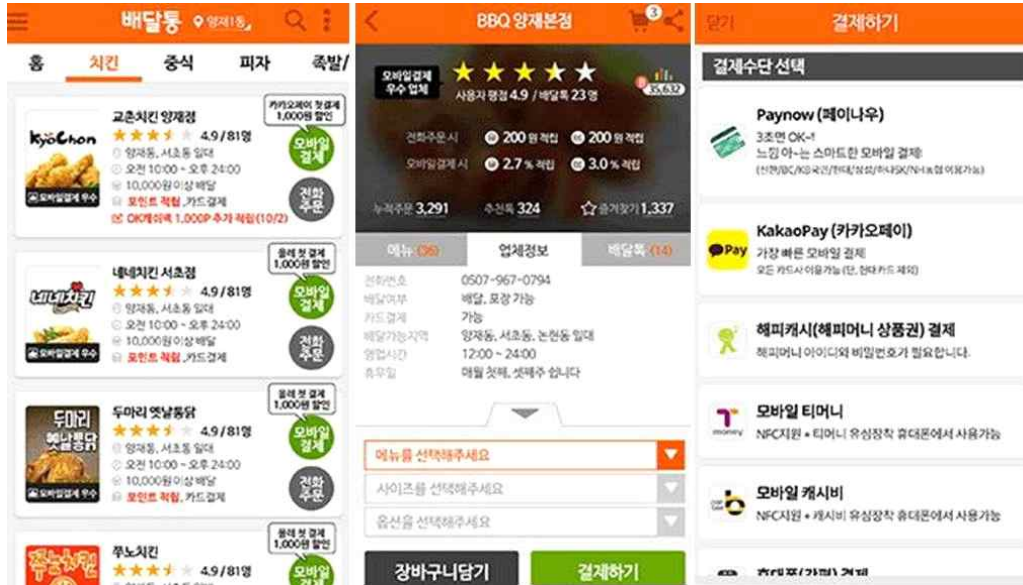
[그림 2-7] 배달 앱 이용 만족도



[그림 2-8] 배달 앱 선택 중요도



[그림 2-9] 배달통 모바일 서비스화면



자료: 배달통 홈페이지(www.bdtong.co.kr)

- 배달통은 소비자들의 주문내역 빅 데이터를 토대로 한 서비스(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배달음식 외에 생활편의 기능의 배달대행도 시행중.

② 유형2=배달대행 : 나눔콜

- '배달대행'은 기존 배달음식점 및 비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가맹을 맺어 배달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업체로, 음식점-고객-배달기사 간을 스마트폰 기반 정보통신기술로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로 배달대행업을 위한 자체 정보통신기술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으로 나눔콜이 있음.

□ 나눔콜

- 나눔콜은 전국 50여개 지역에 지사를 두고 음식점 전용 배달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배달대행업체. 월 가맹비 10~20만원에 가맹점 별로 배달 콜 수가 기본콜 수를 상회할 경우 초과 콜비를 받고, 건당 배달기사 콜비는 100원~300원 사이에서 책정함.

- 나눔콜은 지역마다 지사를 두며, 본사에서 직영으로 두는 지사도 있고,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프로그램과 지사 개소 설계를 지원하여 여는 지사도 있음. 나눔콜은 지사용, 가맹점용, 기사용 프로그램을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배달대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나눔콜 본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사에 제공하고, 지사로부터 건별로 100원씩 프로그램 비를 받음. (*대리운전 본사와 비슷한 체제로 운영)

[그림 2-10] 나눔콜 시스템 배달호출구조



자료: 나눔콜 홈페이지(<http://w.nanumcall.com/>)

③ 유형3=배달주문중개 + 배달대행 : 배민라이더스, 푸드플라이, 락온 등

- ‘배달주문 + 배달대행’은 고객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비배달업체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달 중개와 대행서비스를 제공. 주문 중개앱으로 국내 신종배달 산업을 연 배달의 민족은 2015년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송파, 강남지역에서 비배달 업체 배달 주문중개와 직접배달서비스를 시작함.
- ‘배달주문 + 배달대행’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업체들은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배달 음식점 및 비배달음식점과 가맹을 맺어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를 주문과 배달로 연결함.

- 이들 업체들은 음식배달에 특화되어 있는 곳(배민 라이더스, 푸드플라이)과 일상 심부름과 음식 외 물품배달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는 업체(띵동, 배달요)로 분류됨.

□ **배민라이더스 (배달의민족)**

- 배달의 민족은 운송업체를 인수해 ‘배민라이더스(구 두바퀴콜)’와 ‘배민 Fresh(구 덤 앤더머스)’ 창설. 배민라이더스는 외식업소가 배달하지 않는 품목을 고객에게 배달해주는 서비스, 배민Fresh는 냉장 트럭으로 신선제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담당. 현재 서울 강남, 송파구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배달의민족은 가맹 배달음식점 배달원 대상으로 오토바이 안전교육을 실시. 배민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배달음식점 사장님들에게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점유율 1위 유지를 위해 노력 중.

□ **푸드플라이**

- 푸드플라이는 주요 배달주문중개업체 요기요의 모회사 RGP코리아가 44억 원을 투자한 회사이며, 2010년 서비스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 중(매월 평균 24%씩). 강남역 일대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서울시 내 10개 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성동구, 관악구, 마포구, 광진구, 서대문구, 용산구, 동작구)로 그 지역을 확대하여 배달서비스가 없는 지역 맛집과 유명 프랜차이즈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 주문과 배달 대행 서비스 제공 중.

[그림 2-11] 푸드플라이 서비스 소개 이미지



- 푸드플라이는 전체 1천개 정도의 가맹점 보유. 배달음식 가격, 배달 거리, 음식점 제휴 여부에 따라 회당 평균 2천원~1만원 또는 수수료(음식값 10~15%)를 수취함. 서비스 지역 전 지사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강남지역은 24시간 운영하고, 타 서비스 지역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서비스 운영. 오프라인 기반 지역 맛집 음식을 온라인으로 결제해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주문과 배달호출 간 시스템 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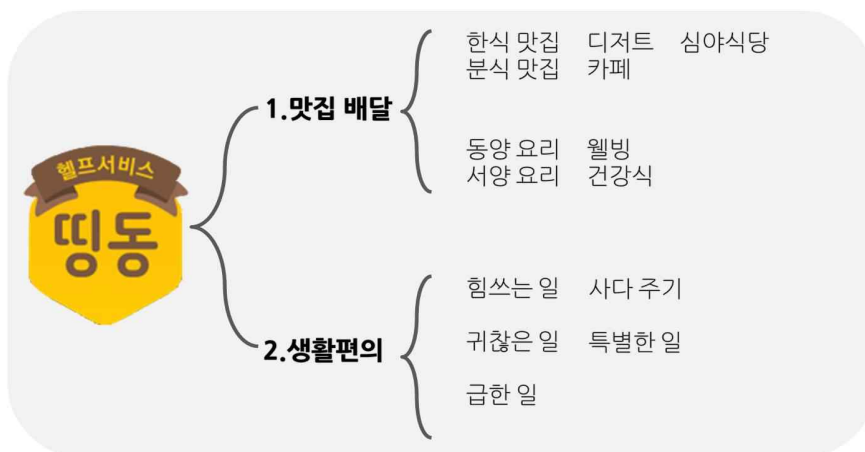
□ **띵동**

- 띵동은 서울시 강남구 내 음식배달과 생활심부름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토탈형 온디맨드 서비스(On-demand service)²⁾ 제공업체. 365일 24시간 자체 콜센터(전화주문)와 메신저(웹, 앱 주문)를 통해 주문을 접수하고, 주문서비스내용과 거리에 따라 서비스요금을 책정. 띵동은 고객의 결제 동의 후(전화 주문시) 혹은 결제 후(웹, 앱 주문시) 배달원(띵동 메신저)이 서비스를 제공함. 주로 음식배달서비스를 제공하나 일상적인 심부름부터 이벤트 대행까지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천여가지에 이릅니다.

[그림 2-12] 띵동 서비스 과정



[그림 2-13] 띵동 서비스 분야



자료: 띵동 홈페이지(<http://www.ddingdong.net/>)

2) 온디맨드 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가 바로 제공되는 형식의 서비스를 의미함.

- 띩동은 앱과 웹을 이용해 B2C 주문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콜이나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주문접수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TMS(total management system)구축하여 운영.
- 띩동은 2014년 3분기 이후 손익분기점을 넘었고, 2015년을 기점으로 2~3년 내 서울 강남권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서비스 확대하려고 계획 중. 2015년 9월 기준, 누적 이용수 10만 명, 월평균 1만 명 정도가 월 2~3회 이용. 월별 누적 주문 건 3만여 건에 이룸.

④ 유형 외=배달인력중개 : 일당백

- ‘배달인력중개’는 스마트폰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단기일자리를 원하는 인력 풀과, 인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장들 간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표적인 앱으로 일당백(ildang100)이 있음. 일당백은 주로 음식점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홀 서빙, 설거지 등과 배달 인력 중개에 특화되어 있음.
- 일당백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에서 음식점 일용직 구인구직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기반 인력중개업체. 사장님회원과 개인회원 가입자를 회원으로 두고 신청한 조건에 맞는 회원 간 연결을 통해 각 회원 층에 서비스를 제공. 일당백에서 중개하는 파트타임 직은 음식점 내에서 일하는 직무(홀 서빙, 주방)와 배달로 나뉨.

[그림 2-14] 일당백 서비스 과정

‘일용직’을 1분만에 구하는 신통방통한 일당백



- 배달원은 일당백이 중개하는 주요직무로 일당백이라는 스마트폰 앱 기반 배달인력중개업체의 출현은 배달아르바이트 구직경로와 고용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당백이 제시하는 배달원 일당은 기본 시급 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일당 앱의 등장 이후 배달원이 이탈하면서 기존 배달원 고용관행이 와해.

“일당앱이 생기면서 기존의 고용관행 깨져”, “6개월 동안 있던 (배달원) 친구도 이거(일당앱) 생겼다고 해서 나가버렸어요. - 박상수(분식집 사장)” (SBS 8뉴스, 201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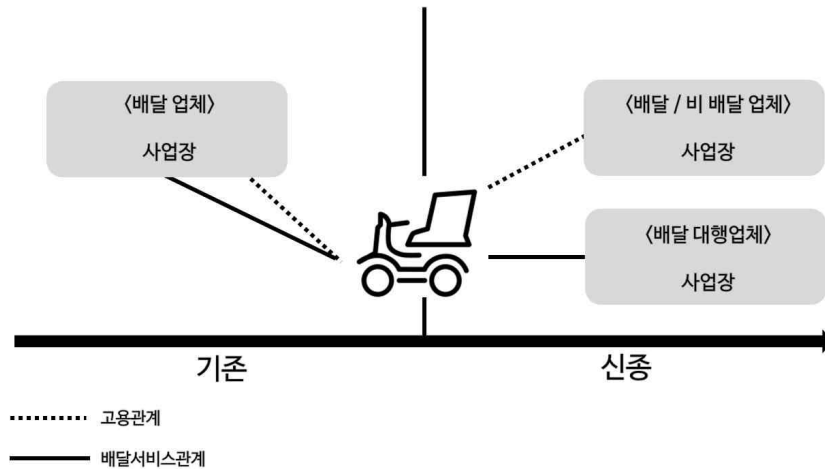
- 기존 배달원 시급보다 높은 시급과 일당은 보장하고, 배달원이 휴일과 근무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달원 노동자들의 조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반면, 일당 앱을 통해 배달원 일을 할 경우 일용직, 일당 고용 및 급여체계로 근무조건이 고정되며, 중개업체에 의한 임의적 고용자-노동자 배정으로 사용자의 노동자 권리보호관계가 성립되기 힘든 구조여서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고도 평가될 수 있음.

2) 신종 배달업 및 배달 대행업 고용구조와 실태

(1) 신종 배달업 고용구조와 노동권

- 기존 배달원의 고용구조는 배달원의 고용관계와 배달서비스 관계가 배달음식을 제공하는 배달 업체 한 곳에 귀속되어 고용과 서비스 관계가 일치했음. 신종 배달산업 하에서의 고용과 서비스 관계가 불일치하게 됨. 예를 들면 엽기떡볶이 집 떡볶이를 배달하는데, 배달원의 고용관계는 생산(떡볶이)과 소비(고객주문)가 발생하는 엽기떡볶이가 아니라 엽기떡볶이 배달을 대행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발생하는 것임.

[그림 2-15] 배달 종사자 고용구조 및 배달서비스 구조



- 신종 배달 앱(app)의 확산과 함께 우후죽순 생겨난 배달대행업체들의 운영방식은 쿡 서비스 업체(늘찬 배달업)의 사업방식과 비슷함. 급여지급방식은 주/일 단위로 건당으로 지급되며, 원동기 리스비 및 주유비 식비 등 개인이 알아서 감당함. 2대보험(고용과 산재)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사업자 신분의 배달원이 많아 해당 안 되는 경우가 많음.
- 배달대행업체와 배달원 간 고용관계 상당수가 개인사업자(배달대행업체)—개인사업자(배달기사) 간 계약관계로 이뤄져 있어 ‘음식점주 사장—배달대행업체 사장 —개인사업자 신분 배달기사’ 간에는 ‘근로계약 관계는 실종된’ 상황임. 근로계약관계 하에서의 업무 지시, 통제 자리는 주문 및 배달정보를 주고받는 정보통신기술이 채운 채 근로계약 없는 배달서비스가 수행되고 있는 실정임.

- 2015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배달원을 고용한 배달업체이기 보다는 상점과 배달원 연결을 용이케 하는 정보통신기술(ICT)업체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리며 2013년 발생한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의 사고에 대한 업체의 산재분담 책임이 없다는 판정을 내림.

사건번호: 서울행법 2014구합75629
 선고일자: 2015-9-17

[요지] 배달원이 배달대행업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지만, 가맹점에서 프로그램에 배달요청을 할 경우 이를 수행할지 여부는 배달원이 결정하였고 거절하더라도 특별한 제제는 없었으며, 특정 배달원을 지목하여 배달을 지시한 적이 없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었던 점, 가맹점의 영업시간에 맞추어 배달이 행해지므로, 사업주가 별도로 업무시간 및 근무 장소를 정하지 않았던 점, 배달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시간대에 다른 회사의 배달 업무를 하는 것도 사실상 가능하고, 배달원이 다른 사람에게 배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도 있었던 점, 배달원이 제공하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의해 수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달 건수에 따라 산정되는 방식이므로, 배달 요청의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이윤 및 손실 발생 부분은 사업주보다는 배달원에게 귀속되었던 점,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산업대해보상보험을 비롯한 이른바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배달원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건: 2014구합75629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 배달대행업체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배달시장 내에서 배달원들이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업체의 시스템과 지시 하에서 노동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같이 분류되고 있어, 배달아르바이트 및 해당 직종의 노동권 보호에 취약한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업체 유형이라 판단됨.
- 신종배달업 형성을 촉발하였지만 실제 배달원을 고용하지 않는 주문중개업체(요기요, 배달통 등)를 제하고 배달노동이 발생하는 신종배달업체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배민라이더스를 제한 모든 업체가 건별 급여체제로 배달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배민라이더스는 배달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그 외의 신종배달업체 소속 배달원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콜을 수락하여 건별로 배달을 수행하는 배달원임. 따라서 판례상 법적으로 노동자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이 증가한 것 외에 최근 정보기술의 접합이 불러온 배달노동시장의 변화가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에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없다고 보여 짐. 오히려 노동자의 노동자 지위와 고용조건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2) 신종 배달산업 유형별 업체 사례

① 유형2=배달대행 : 나눔콜

-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주문과 배달서비스를 중개만 할 뿐 직접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달 인력을 관리하지 않음. 따라서 주문중개업체를 통해 들어온 배달 주문은 ‘배달음식점’이나 ‘배달대행업체’가 대행하는 구조임.
- ‘신종’배달업과 관련하여 배달노동자 실태 파악을 위해 유의하게 볼 업체는 ‘주문중개업체’가 아닌 ‘배달대행업체’임.

□ 나눔콜

※ 면접 정보

- 나눔콜 마포지사(관리자) 김○○ (2015.11.24.)
- 나눔콜 본사(관리자)_지사 계약 및 관리 담당 ○○○ (2015.12.8.)

- 나눔콜은 가맹점과의 계약조건 및 배달원 고용체계 및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본사 차원에서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지사장의 개인권한에 맡겨져 나눔콜은 지사별로 노동조건이 판이함.

- 배달기사 고용형태는 지사별로 직접 고용하기도 하고, 프리랜서(개인사업자)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프리랜서라고 보면 됨. 음식배달대행업은 음식 계 퀵이라고 보면 됨.
- 임금은 건별로 지급되며, 지점마다 건별 임금이 다름. 임금은 나눔콜 지역지사 경쟁사 및 사업여건에 따라 기본 건별임금이 달라지며, 거리 및 배달하는 상품 가격에 따라서도 건별 수수료가 달라짐. 건별 임금 상한선과 하한선은 본사차원에서 정해진 게 없음. 평균적으로 보통 건당 3,300원 정도이나 지점마다, 동네마다 천차만별임.
- 나눔콜의 경우 배달하는 상품이 배달 중 파손되면 기사에게 배상책임이 돌아가나 이 또한 지사장의 재량으로 조건이 바뀔 수 있으며, 배달 지연 및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음식 반품 부담책임에 대한 규정도 부재. 상황에 따라 가맹점—지점—배달기사 등으로 책임 주체가 갈림.
- 나눔콜 마포지사의 경우, 26세에서 40대 사이의 배달원 7~8명 규모로 운영 중임. 배달원 별 평균 근로시간은 7시간 정도이나 근로일과 시간 모두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퀵 기사들이 아르바이트로 많이 한다고 함. 건별 임금은 2,500원이며, 오토바이 리스비는 월 12~13만원이고, 헬멧 등 보호 장구는 개인이 지참함.
- 마포지사의 경우 시작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지사로, 수입이 많은 지사의 경우 한 기사가 13시간 정도 일할 경우, 하루에 50~60콜 소화. 건별로 3천원 받는다고 하면 $3,000\text{원} \times 50\text{콜} = 150,000\text{원}$ 정도의 소득을 취함.
- 나눔콜, 바로고물 등 자체시스템을 기반으로 배달대행업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업체들은 지역별로 프랜차이즈형으로 지사점포를 내주고 관리, 지사별 배달원 고용 및 노동조건이 달라 일관된 노동권 보호환경 형성이 어려움. 이에 따라, 감정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배달직무의 고됨에 비해 그를 지원할 노동복지와 보상계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

② 유형3=배달주문중개 + 배달대행 : 푸드플라이, 땡땡

※ 면접 정보

- 땡땡(배달원) ○○○ (2015.11.23.)
- 푸드플라이(관리자) 노○○ (2015.11.30.)

- 기존에 배달 서비스를 하지 않는 음식점을 가맹점으로 두어 비 배달 음식점의 배달 주문접수와 배달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들의 모델로 배민라이더스, 푸드플라이, 땡땡 등이 해당함. 유형3에 해당하는 업체 내에서 배달기사는 직접 고용하는 경우(배민라이더스)와 개인사업자 배달기사를 모집하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푸드플라이, 땡땡)으로 나뉨.

□ 푸드플라이

- 푸드플라이는 배달원을 푸플라이더(푸드플라이라이더)라 칭하며, 보통 30대 초반이 많음. 내규 상 청소년은 고용하지 않음. 고용형태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하루 기본 10시간~12시간, 일주일에 5일~6일(평균 5.5일) 일하며 근로시간과 일자는 자율적으로 선택함.
- 임금은 건별 수수료로 지급하며, 배달 거리별로 수수료가 달라짐. 라이더 1명이 1시간에 약 2.5건을 소화하며 건별 수수료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만 원 정도의 액수가 됨. 한편 푸드플라이는 사내 안전교육 및 지침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며 입사 후 3일간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교육비를 시급 1만원 수준으로 지급함. 오토바이, 유류비, 수리비, 헬멧, 무릎보호대, 팔목보호대, 유니폼 등 보호 장구 일체 회사에서 리스비 없이 지급함.
- 푸드플라이는 전 지역 직영지점체제로 현재 5개 지역에 개소된 지점은 라이더 휴게 공간으로 활용. 쇼파, 커피, 라면을 구비해놓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푸드플라이는 배달대행업체에 비해 노동권 보호 및 복지 수준이 괜찮은 편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고 함. 이에 회사 측에서도 “어떻게 하면 라이더들이 이탈하지 않고 직장처럼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을까”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토로함.

- 푸드플라이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나 배달원 지위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기
에 4대 보험 가입은 보장하지 않음. 이에 배달 중 사고 시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
하고, 배달 환불 및 취소 등으로 인한 손실은 사측이 전적으로 부담함.
- 푸드플라이에서 배달원 직원화도 고려해 보았으나 라이더가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
기도 함. 약 70%정도는 세금문제로 인해 4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음.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고용형태를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 못하는 부분도 있음.
- 배달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배달원들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으로 실제
배달원 중 자신의 지인과 가족에게는 배달일 하는 걸 숨기고 하는 이도 있음. 실제
로 배달 노동자들은 진상고객으로 인한 노동스트레스도 큰 편임. 늦게 왔다고 음식
을 던지는 고객도 있고, 회사로 찾아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음식이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반품하는 사람도 있고 진상의 양태가 천차만별임.
- 배달원들이 느끼는 또 다른 어려운 점은 음식이 자동주문 들어간 후 업체마다 음식
나오는 시간이 다른데 음식 나오는 시간이 길어지면 음식을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하
는 분들이 많음, (건당 임금 산정 시 배달 소요시간은 반영 안 됨)

□ 땡동

- 땡동에서는 배달원들을 땡동메신저라 부르며 땡동메신저들은 하루 12시간 내내 거
의 밖에서 콜을 받고 배달 및 심부름요청을 처리함. 땡동은 따로 근로계약을 쓰지
않고 역시 개인사업자 신분의 배달원을 사용함. 하루 평균 땡동에 들어오는 콜은
1300콜, 한 달 평균 약 3만 콜 정도이며 기사 1인 당 하루에 보통 40~50콜, 많을
경우 70콜 까지 소화함. 하루 12시간, 일주일에 6일 근무.
- 같은 노동조건 하에서 이전에는 땡동메신저 평균 급여가 230만 원 정도이었으나
안정적인 배달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소급여 10%인상, 인센티브제로 전환하는 등 배
달원 급여체계 대폭 개편한 이후 땡동 메신저 평균 급여는 400만 원이며 배달원
50%이상이 500만 원 이상의 급여 수령함.
- 배달 및 심부름 조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 비'또는 '심부름 비'에 대한 사
측과 배달원의 배분율이 달라지며, 자가 전동차를 소유한 배달원의 경우 최대 65%
를 배달원이 가짐.(메신저가 자가 전동차 보유 시, 사측 오토바이 이용 시보다 건별
수수료 5%를 더 가져감)³⁾

3.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실태와 특징 - 설문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 표본

○ 배달 아르바이트 설문조사

- 본 자료는 ‘2015년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위해 연구진이 조사한 설문분석 자료를 분석한 것임. 배달 아르바이트는 기본 배달 250명, 신종배달 200부가 수거되었고, 설문조사 시기와 표본은 아래와 같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시기 : 2015년 11월 10일 ~ 12월 4일까지 약 한 달 여간 진행- 조사 표본 : 450명(기존 배달 250명, 신종배달 및 중계 배달 200명)- 조사 분석 : 설문조사 분석은 SPSS 통계를 활용하여 문항별 단순 빈도 및 교차분석 진행. |
|--|

(2) 조사 대상 특징

○ 사업체 규모 및 업종유형

- 배달 아르바이트 사업체 업종은 ‘배달 대행업체’(44.4%) > ‘일반 소규모 음식점’(30.7%) > ‘패스트푸드’(24.9%) 순 나타났으며, 사업체 종류로 살펴보면 ‘패스트푸드’(49.6%) > ‘한식’(26.7%) 순으로 나타남.
- 배달 아르바이트 사업체 규모는 1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 대부분을 차지함. 현 근무지 종사자 수는 평균 4.3명이며, ‘1-4인’규모 사업장(63.3%)이 가장 많고 ‘5-9인’(29.8%)이 그 다음 순임.

3) 참고로 역삼동 보리스 와플에서 도곡동으로 음료 2잔 주문 시 배달 비는 7천원이 책정되어 있음.

〈표 3-1〉 서울지역 배달 사업체 업종 사업체 종류(단위: 명 %)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업종 형태	기존	패스트푸드점	112	24.9	업종 종류	패스트푸드	223	49.6
		소규모 음식점	138	30.7		중식	61	13.6
	신종	배달대행업체	200	44.4		한식	120	26.7
		합계	450	100		분식	37	8.2
사업체 규모	1-4인	285	63.3	일식		8	1.8	
	5-9인	134	29.8	합계		449	99.8	
	10-29인	30	6.7	*평균 종사자 수 4.3명				
	30인 이상	1	0.2					
	합계	450	100					

○ 인구학적 속성

- 배달 아르바이트 평균 연령대는 25.8세 이며, 남성은 25.6세 여성은 26.9세임. ‘남성’(96.9%)이 대다수이며, 주로 20대임. ‘20-24세 미만’(37.3%) > ‘25-29세 미만’(32.7%) 순으로 나타남. 학력은 ‘고졸’(80.2%) > ‘대학이상’(18.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대부분 ‘미혼’(89.6%) 임.

〈표 3-2〉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인구학적 속성(단위: 명, %)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여성	14	3.1	혼인여부	기혼	47	10.4
	남성	436	96.9		미혼	403	89.6
	합계	450	100.0		합계	450	100.0
학력	중졸	7	1.6	연령대 (25.8세)	15-19세	29	6.4
	고졸	361	80.2		20-24세	168	37.3
	대학이상	82	18.2		25-29세	147	32.7
	합계	450	100.0		30-34세	106	23.6
					합계	450	100.0

주) 응답자 중 여성 배달 아르바이트들은 분식(4), 한식(3), 중식(1)에서 각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괄호는 빈도, 나머지는 무응답)

○ 근무형태 및 아르바이트 근속기간

- 배달 아르바이트 고용형태는 모두 비정규직이며, ‘단시간 근로’(78.7%) > ‘기간제 계약직’ (21.3%) 순으로 나타났음. 배달 아르바이트 근속기간은 평균 0.6년이며 ‘6개월 미만’(64.7%)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배달 아르바이트 종사자 대부분은 ‘단시간 근로’ 많은데, 하위 업종 중 ‘패스트푸드점’ 과 ‘사업체 규모’는 영세 규모 일수록 단시간 근로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3>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근무형태 및 근무기간(단위: 명, %)

근무형태			배달 근속기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기간제 계약직	96	21.3	6개월 미만	291	64.7
단시간 근로 (파트타임)	354	78.7	6개월 -1년 미만	85	18.9
합계	450	100.0	1년 이상	74	16.4
*평균 근속기간 0.6년			합계	450	100.0

<표 3-4>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근무형태 및 근속기간(단위: %)

		기간제 계약직	단시간 근로 (파트타임)
업종 형태	기존	패스트푸드점	84.8
		일반 소규모 음식점	74.6
	신종	배달대행업체	78.0
사업체 규모	1-4인		89.8
	5-9인		61.9
	10-29인		50.0
	30인 이상		

2)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조건

(1) 노동환경 및 구직활동

○ 아르바이트 횟수 및 근속기간

- 배달 아르바이트 응답자 중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총 횟수는 평균 3.2회로 나타남. 현재 일하고 있는 배달 아르바이트 근속기간은 평균 0.6년이며, 이전 동종업 배달 근속기간까지 합치면 평균 2.6년으로 나타남.

〈표 3-5〉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조건 (단위: 세, 명, 회, 년)

	나이	현 근무지 종사자 수	배달원 아르바이트 횟수 및 근속기간			
			아르바이트 총 횟수 (현재 포함)	현 직장 근속기간	동종업 근속기간	
연령대	15-19세	18.4	4.6	2.2	0.3	0.8
	20-24세	22.0	3.8	2.9	0.5	1.8
	25-29세	26.9	4.5	3.4	0.6	3.3
	30-34세	31.6	4.7	3.8	0.9	3.3
학력	중졸	25.3	2.9	2.4	0.4	1.7
	고졸	25.6	4.3	3.2	0.6	2.3
	대졸이상	25.7	4.3	3.4	0.7	4.0
업종	패스트푸드점	24.8	4.4	3.1	0.6	2.2
	소규모 음식점	26.8	3.9	3.2	0.6	2.6
	배달대행업체	25.3	4.5	3.3	0.6	2.9
합계(평균)		25.8	4.3	3.2	0.6	2.6

○ 구직 동기

- 배달 아르바이트 이유 1순위로는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가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으나 구할 수가 없어서'가 21.9%를 차지함.

<표 3-6>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이유(다중응답, 단위: %)

	1+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265	29.4	193	42.9	72	16.0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될 것	95	10.6	32	7.1	63	14.0
주변 사람이 같이 해보자고 해서	100	11.1	44	9.8	56	12.4
남들이 흔히 하지 않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26	2.9	13	2.9	13	2.9
다른 아르바이트 하고 싶었으나 구하지 못해서	197	21.9	105	23.3	92	20.4
오토바이 등 운전을 좋아해서	132	14.7	46	10.2	86	19.1
타 직종 대비 채용 수가 많아서	65	9.4	17	3.8	68	15.1
합계	900	100	450	100	450	100

<표 3-7>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이유 (1순위, 단위: %)

	연령대				업종			합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패스트 푸드점	소규모 음식점	배달대행 업체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55.2%	40.5%	44.9%	40.6%	50.9%	45.7%	36.5%	42.9%
젊은 나이에 값진 경험이 될 것 같아	3.4%	8.3%	5.4%	8.5%	9.8%	5.1%	7.0%	7.1%
주변 사람이 같이 해보자고 해서		10.7%	13.6%	5.7%	5.4%	10.9%	11.5%	2.8%
남들이 흔히 하지 않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3.4%	1.8%	2.1%	2.8%	3.6%	4.3%	1.5%	2.9%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서	20.7%	21.4%	18.4%	34.0%	22.3%	21.7%	25.0%	23.2%
오토바이 등 운전을 좋아해서	13.8%	15.5%	7.5%	4.7%	5.4%	8.7%	14.0%	10.2%
타 직종 대비 채용 수가 많아서	3.4%	1.8%	6.1%	3.8%	2.7%	3.6%	4.5%	3.8%

- 배달 아르바이트 이전 경험은 80.4%로 거의 대부분 이전에 배달을 했던 사람들이 현재도 배달을 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근무하는 곳 이외의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임.

〈표 3-8〉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동종 경험 및 투잡 여부

		이전 배달원 아르바이트 경험		투잡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연령대	15-19세	55.2%	44.8%		100.0%
	20-24세	78.6%	21.4%	3.0%	97.0%
	25-29세	79.6%	20.4%	8.2%	91.8%
	30-34세	91.5%	8.5%	5.7%	94.3%
업종	패스트푸드점	73.2%	26.8%	5.4%	94.6%
	소규모 음식점	81.9%	18.1%	4.3%	95.7%
	배달대행업체	83.5%	16.5%	5.5%	94.5%
합계		80.4%	19.6%	5.1%	94.9%

○ 노동시간

- 배달 아르바이트 1주일 평균 근무일은 5.6일이며,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6시간, 주 평균 근로시간은 48.3시간으로 나타남.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연령대 30-34세’(56.9%)와 ‘기혼’(57.1%)일 경우이기에, 사실상 생계형 아르바이트로 종사할 가능성이 높음.

〈표 3-9〉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시간1(단위: 일, 시간)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시간			
		1주일하는 날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
연령대	15-19세	5.1	7.6	38.3	21.9
	20-24세	5.6	8.1	45.4	21.8
	25-29세	5.5	8.6	47.4	22.0
	30-34세	6.0	9.6	56.9	22.5
결혼여부	기혼	5.9	9.6	57.1	16.9
	미혼	5.6	8.4	47.3	22.6
업종	패스트푸드점	5.5	8.6	47.3	21.4
	소규모 음식점	5.7	9.0	51.0	20.7
	배달대행업체	5.7	8.3	47.0	23.4
합계(평균)		5.6	8.6	48.3	22.0

〈표 3-10〉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시간2(단위: 분)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시간 - 대기, 휴게, 식사		
		대기시간 (휴게시간 외)	휴게시간 (대기시간 외)	식사시간 (휴게시간 외)
연령대	15-19세	18.7	30.0	28.0
	20-24세	18.3	23.9	30.6
	25-29세	19.1	25.6	32.7
	30-34세	19.3	32.0	36.6
업종	패스트푸드점	18.0	28.4	32.3
	소규모 음식점	19.7	31.0	34.5
	배달대행업체	18.6	23.3	32.0
합계(평균)		18.8	26.6	32.8

- 배달 아르바이트 대기시간은 평균 18.8분이며, 휴게시간은 평균 26.6분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더 많이 보장 받고 있는 경향을 보임. 한편 배달 아르바이트 식사시간(휴게시간 외)은 평균 32.8분으로 나타남.

2) 급여 및 계약서 작성

○ 급여지급 형태

- 배달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 형태는 4가지로 시급제(54.2%), 일당제(31.3%), 월급제(11.3%), 실적제(건별 수수료 3.1%) 순이었음. 배달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방식이 시급제일 경우 평균 시간당 6,659원, 일당제일 경우 하루 평균 78,531원, 실적제일 경우 건 당 평균 3,357원, 월급제일 경우 월 평균 1,653,333원으로 나타남.

〈표 3-11〉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평균 임금(단위: 원, 명)

급여지급 형태	평균 임금
시급제	6,659원(244)
일당제	78,531원(141)
실적제(건 당)	3,357원(14)
월급제	1,653,333원(51)

- 배달 아르바이트 시급은 일의 성격상 거의 대부분 법정최저임금(5,580원)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었으나, 최저임금 미달 비율도 3.5% 정도 확인됨. 연령별 시급 분포를 보면 ‘30-34세’집단이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음. 사업체 종류 중 ‘배달대행업체’는 실적제(수수료로 운영)로 운영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급은 6,770원 정도였음.

〈표 3-12〉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평균 임금 실태(단위: 원)

		시급제	일당제	실적제(건당)	월급제
연령대	15-19세	6,317	63,250	3,000	
	20-24세	6,580	77,967	3,000	1,411,429
	25-29세	6,671	80,909	3,000	1,415,833
	30-34세	7,044	82,121	3,833	2,091,875
사업체 업종	패스트푸드	6,493	78,750	4,000	1,698,000
	일반음식	6,653	79,348	3,667	1,743,500
	배달대행	6,770	77,452	3,200	
합계		6,659	78,531	3,357	1,653,333

○ 급여수령

- 배달 아르바이트 급여지급 방식은 ‘계좌입금’(68.3%)이 가장 많았으며, ‘시급제’(54.2%) > ‘일당제’(31.3%) > ‘월급제’(11.3%) > ‘실적제’(3.1%) 순으로 나타남.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급여 명세서를 받지 못한 비율이 64.9%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3〉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 방식 및 형태

		급여 수령방식		급여 명세서 지급여부			급여지급방식			
		계좌입금	현금	예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	시급제	일당제	실적제 (건당)	월급제
연령대	15-19세	65.5%	34.5%	17.2%	72.4%	10.3%	48.3%	44.8%	6.9%	
	20-24세	64.3%	35.7%	22.0%	60.7%	17.3%	69.6%	22.6%	1.8%	6.0%
	25-29세	67.3%	32.7%	30.6%	63.3%	6.1%	53.7%	30.6%	2.0%	13.6%
	30-34세	77.4%	22.6%	20.8%	71.7%	7.5%	32.1%	42.5%	5.7%	19.8%
업종	패스트푸드점	78.6%	21.4%	29.5%	59.8%	10.7%	66.1%	19.6%	0.9%	13.4%
	소규모음식점	62.3%	37.7%	18.1%	74.6%	7.2%	40.6%	42.8%	2.2%	14.5%
	배달대행업체	67.0%	33.0%	25.5%	61.0%	13.5%	57.0%	30.0%	5.0%	8.0%
합계		68.4%	31.6%	24.2%	64.9%	10.9%	54.2%	31.3%	3.1%	11.3%

○ 수당

- 배달 아르바이트 초과 수당(1.5배) 유경험자는 44.4% 정도였고, 초과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의견이 26.7% 정도나 되었으며, 해당 사항 없음(28.9%)도 꽤 높았음. 한편 주휴수당은 주15시간 근무 약정 유경험자(53.1%) 중 ‘받고 있지 않다’(51.5%)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 배달 업종 중 ‘배달대행업체’ 집단에서 초과 수당 적용 비율이 55.5%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소규모 음식점’집단에서는 주휴수당 ‘받지 않고 있는 비율(71.6%)이 높았음.

〈표 3-14〉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수당 관련 (단위: %)

		초과 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약정		주휴수당			
		받았다	없음		예	아니오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주휴 수당을 모름	해당 사항 없음
			받지 않았다	해당 사항 없음						
연령대	15-19세	51.7%	20.7%	27.6%	27.6%	72.4%	37.5%	25.0%	12.5%	25.0%
	20-24세	55.4%	26.2%	18.5%	57.1%	42.9%	35.4%	49.0%	2.1%	13.5%
	25-29세	38.1%	24.5%	37.4%	52.4%	47.6%	24.7%	55.8%	2.6%	16.9%
	30-34세	34.0%	32.1%	34.0%	54.7%	45.3%	24.1%	53.4%	3.4%	19.0%
업종	패스트푸드점	39.3%	33.9%	26.8%	55.4%	44.6%	27.4%	51.6%	3.2%	17.7%
	소규모음식점	32.6%	31.9%	35.5%	53.6%	46.4%	16.2%	71.6%	1.4%	10.8%
	배달대행업체	55.5%	19.0%	25.5%	51.5%	48.5%	39.8%	36.9%	3.9%	19.4%
합계		44.4%	26.7%	28.9%	53.1%	46.9%	29.3%	51.5%	2.9%	16.3%

○ 근로계약 및 손해배상 작성

- 배달 아르바이트 종사자 중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1교부 비율은 63.3%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다만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중일을 시작하면서 안전사고 손해배상 서약서를 체결한 비율이 72.9%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구두 서약’ 및 ‘서면작성’은 사실 상 근로자에게 손실을 묻는 것으로 업무 관련 안전사고는 사업체(고용주) 책임 임에도 불구하고 2/3이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현실임.

〈표 3-15〉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직종 관련 계약서 작성여부 (단위: %)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안전사고 손해배상 서약서 작성		
		작성함		작성하지 않음	예		아니오
		교부받음	교부받지 못함		구두 서약	서면 작성	
연령대	15-19세	27.6%	13.8%	58.6%	24.1%	37.9%	37.9%
	20-24세	36.3%	23.8%	39.9%	27.4%	45.2%	27.4%
	25-29세	38.8%	22.4%	38.8%	27.2%	46.3%	26.5%
	30-34세	36.8%	17.0%	46.2%	36.8%	38.7%	24.5%
업종	패스트푸드점	36.6%	23.2%	40.2%	29.5%	49.1%	21.4%
	소규모 음식점	25.4%	24.6%	50.0%	37.0%	37.0%	26.1%
	배달대행업체	44.5%	17.5%	38.0%	24.0%	45.0%	31.0%
합계		36.7%	21.1%	42.2%	29.3%	43.6%	27.1%

3)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생활 실태

(1) 일과 노동

○ 배달 노동시장 실태

-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은 서비스 노동 성격 상 주말에도 거의 매일 일(67.6%)하는 상황이며,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업종 특성 상 주말에 많은 주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쉬지 못하고 일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86.9%)임. 배달 아르바이트 중 휴게시간 '없음'(89.3%)이 대다수이며, 식사시간도 '없음'(67.8%)이 3분의 2정도였음.

〈표 3-16〉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시장 실태 (단위: %)

		주말 근무 여부				휴게시간 유무		별도식사시간 유무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일한다.		있음	없음	있음	없음
				거의 매번 일한다.	매주 한다.				
연령대	15-19세	3.4%	27.6%	58.6%	10.3%	10.3%	89.7%	17.2%	82.8%
	20-24세	8.9%	8.3%	70.8%	11.9%	10.1%	89.9%	29.2%	70.8%
	25-29세	3.4%	7.5%	70.7%	18.4%	12.2%	87.8%	38.1%	61.9%
	30-34세	0.9%	3.8%	60.4%	34.9%	9.4%	90.6%	33.0%	67.0%
업종	패스트푸드점	8.9%	10.7%	56.3%	24.1%	14.3%	85.7%	35.7%	64.3%
	소규모 음식점	1.4%	9.4%	67.4%	21.7%	7.2%	92.8%	28.3%	71.7%
	배달대행업체	5.0%	6.0%	74.0%	15.0%	11.0%	89.0%	33.0%	67.0%
합계		4.9%	8.2%	67.6%	19.3%	10.7%	89.3%	32.2%	67.8%

○ 업무 이외 과외 업무

- 배달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달리 업무 중단 경험은 거의 없었으나, 업무 중단 유경험자 중 '조기퇴근 경험 있음'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연령대 '15-19세'(13.8%)가 가장 높음. 이는 배달원이 아직 연소사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작성 자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더 노동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임을 알 수 있음.

- 한편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중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식사를 하거나 휴식시간을 가짐’(57.5%) > ‘다른 일을 함(42.4%)’순으로 나타났으며, 식사를 하거나 휴식시간을 가지지만 ‘시급에 미포함’되는 경우가 17.1%였음.

〈표 3-17〉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업무 외 일 경험 1

		업무 중단 요구받은 경험			배달 없을 때 다른 일을 하는가?		
		잠시 밖에 나갔다 온 적은 있다	조기 퇴근 경험 있다	경험 없다	다른 일을 함(청소 등 기타 잡무)	식사 하거나 휴식시간	
						시급에 포함	시급 미포함
성별	여성		7.1%	92.9%	14.3%	21.4%	64.3%
	남성	1.8%	2.5%	95.6%	43.3%	41.1%	15.6%
연령대	15-19세		13.8%	86.2%	41.4%	44.8%	13.8%
	20-24세	0.6%	1.2%	98.2%	44.0%	39.3%	16.7%
	25-29세	4.1%	2.7%	93.2%	36.1%	46.3%	17.7%
	30-34세	0.9%	1.9%	97.2%	49.1%	33.0%	17.9%
업종	패스트푸드점	2.7%	6.3%	91.1%	40.2%	43.8%	16.1%
	소규모 음식점	1.4%	0.7%	97.8%	45.7%	39.1%	15.2%
	배달대행업체	1.5%	2.0%	96.5%	41.5%	39.5%	19.0%
합계		1.8%	2.7%	95.6%	42.4%	40.4%	17.1%

〈표 3-18〉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업무 외 일 경험 2

		배달 없을 때 어떤 일을 하는가.		
		다른 일을 함(청소 등 기타 잡무)	식사/휴식시간 가짐(시급 포함)	식사/휴식시간 가짐(시급 미포함)
급여지급 방식	시급제	32.4%	46.3%	21.3%
	일당제	61.0%	26.2%	12.8%
	실적제(건당)	7.1%	71.4%	21.4%
	월급제	49.0%	43.1%	7.8%
합계		37.3%	46.7%	15.8%

○ 수습 및 체불 경험

- 배달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은 거의 없었으며(97.1%), 체불경험은 약 12.6% 정도에서 확인됨. 이에 따른 대처방식으로 ‘출 때까지 근무하면서 기다림’(53.8%) >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46.2%) 순으로 각각 나타남.
-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체불 관련 지급 대처방식은 연령 및 업종 내에서 각각 차이를 보임. 20대 집단은 주로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이 높게 나타난 반면 ‘30-34세’집단은 ‘출 때까지 근무하면서 기다림’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업종 중 패스트푸드점,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출 때까지 기다림’이 높게 나타난 반면, 배달 대행업체에서는 ‘사업주에게 임금지급 요청’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3-19> 서울지역 배달원 수습 및 체불경험

		계약기간 1년 미만 수습사원 경험유무		늦게 임금지급 받은 경험 유무		임금지급 늦어진 경우 대처방식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사업주 임금지급요청	출때까지 근무하면서 기다림
성별	여성	21.4%	78.6%	35.7%	64.3%	60.0%	40.0%
	남성	2.3%	97.7%	10.8%	89.2%	44.7%	55.3%
연령대	15-19세	3.4%	96.6%	10.3%	89.7%	33.3%	66.7%
	20-24세	3.0%	97.0%	12.5%	87.5%	52.4%	47.6%
	25-29세	3.4%	96.6%	11.6%	88.4%	52.9%	47.1%
	30-34세	1.9%	98.1%	10.4%	89.6%	27.3%	72.7%
업종	패스트푸드점	2.7%	97.3%	9.8%	90.2%	36.4%	63.6%
	소규모 음식점	2.2%	97.8%	12.3%	87.7%	29.4%	70.6%
	배달대행업체	3.5%	96.5%	12.0%	88.0%	62.5%	37.5%
합계		2.9%	97.1%	11.6%	88.4%	46.2%	53.8%

○ 업무중단 시 급여지급

- 배달 아르바이트 중 약속한 근로시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단한 경험은 약 25.6%나 되었음. 배달 아르바이트 체불 유경험자(25.6%) 중 ‘일한 시간보다 시급 적게 계산 해서 받음’(19.1%)은 사례도 있음. 또한 기존 배달 업체(패스트푸드, 일반음식점)보다 신종 ‘배달대행업체’에서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표 3-20〉 서울지역 배달원 업무중단 시 급여지급

		약속한 근로시간 도중에 그만둔 적 있는가.		그만둘 때 임금 어떻게 받았나.		
		예	아니오	일한 시간만큼 받음	일한 시간보다 적게 받음	돈을 전혀 받지 못함
연령대	15-19세	13.8%	86.2%	100.0%		
	20-24세	23.2%	76.8%	79.5%	17.9%	2.6%
	25-29세	25.2%	74.8%	83.8%	13.5%	2.7%
	30-34세	33.0%	67.0%	65.7%	28.6%	5.7%
업종	패스트푸드점	30.4%	69.6%	97.1%	2.9%	
	소규모 음식점	25.4%	74.6%	71.4%	22.9%	5.7%
	배달대행업체	23.0%	77.0%	67.4%	28.3%	4.3%
합계		25.6%	74.4%	77.4%	19.1%	3.5%

○ 배달인력, 대체인력

- 배달 현장은 배달 주문량 대비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조금 부족 55.6%, 어느 정도 충분41.6%)이며, 대체인력 구할 때까지 일 지속하는 상황(42%)이었음. 업종 중 ‘패스트푸드점’과 ‘배달대행업체’에서 대체인력 수요가 일반 음식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3-21〉 서울지역 배달 인력 및 대체인력 (단위: %)

		주문량 대비 배달인력 충분여부			대체인력 구할 때까지 일 지속		대기휴게시간 중 지시명령 여부	
		어느 정도 충분	조금 부족	매우 부족	그렇다	아니다	있다	없다
연령대	15-19세	41.4%	55.2%	3.4%	37.9%	62.1%	41.4%	58.6%
	20-24세	48.8%	50.0%	1.2%	38.1%	61.9%	42.9%	57.1%
	25-29세	42.2%	56.5%	1.4%	42.2%	57.8%	41.5%	58.5%
	30-34세	29.2%	63.2%	7.5%	49.1%	50.9%	45.3%	54.7%
업종	패스트푸드점	37.5%	60.7%	1.8%	48.2%	51.8%	42.0%	58.0%
	소규모 음식점	35.5%	59.4%	5.1%	44.2%	55.8%	50.7%	49.3%
	배달대행업체	48.0%	50.0%	2.0%	37.0%	63.0%	38.0%	62.0%
합계		41.6%	55.6%	2.9%	42.0%	58.0%	42.9%	57.1%

(2) 노동안전

○ 사회보험

-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은 거의 대부분 가입하지 않는 것(80.3%)으로 확인됨. 배달 아르바이트의 사회보험 각각의 가입률은 산재보험 32.7%, 고용보험 12.2%, 국민연금 6.4%, 건강보험 6.2% 순이었음.
- 한편 '패스트푸드점'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한편 '배달대행업체'는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가장 낮았고, '일반소규모 음식점'은 산재보험이 가장 낮았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패스트푸드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기간이 길수록 가입률이 높아짐.

〈표 3-22〉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사회보험 가입여부(단위: %)

		가입	미가입	잘 모름
고용보험	빈도	55	372	23
	%	12.2	82.7	5.1
산재보험	빈도	147	278	25
	%	32.7	61.8	5.6
국민연금	빈도	29	396	25
	%	6.4	88.0	5.6
건강보험	빈도	28	399	23
	%	6.2	88.7	5.1
합계		14.4%	80.3%	5.3%

〈표 3-23〉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고용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잘 모름	가입	미가입	잘 모름
연령대	15-19세	10.3%	79.3%	10.3%	31.0%	48.3%	20.7%
	20-24세	11.3%	81.5%	7.1%	32.7%	59.5%	7.7%
	25-29세	15.6%	79.6%	4.8%	35.4%	61.9%	2.7%
	30-34세	9.4%	89.6%	0.9%	29.2%	68.9%	1.9%
근속기간	6개월 미만	11.7%	84.5%	3.8%	34.4%	60.5%	5.2%
	6개월-1년 미만	8.2%	82.4%	9.4%	22.4%	70.6%	7.1%
	1년 이상	18.9%	75.7%	5.4%	37.8%	56.8%	5.4%
업종	패스트푸드점	23.2%	73.2%	3.6%	42.9%	51.8%	5.4%
	소규모 음식점	8.7%	86.2%	5.1%	25.4%	71.0%	3.6%
	배달대행업체	8.5%	85.5%	6.0%	32.0%	61.0%	7.0%

〈표 3-24〉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미가입	잘 모름	가입	미가입	잘 모름
연령대	15-19세	6.9%	86.2%	6.9%	6.9%	86.2%	6.9%
	20-24세	6.5%	85.7%	7.7%	6.5%	86.9%	6.5%
	25-29세	8.2%	86.4%	5.4%	6.8%	87.8%	5.4%
	30-34세	3.8%	94.3%	1.9%	4.7%	93.4%	1.9%
근속기간	6개월 미만	7.2%	89.0%	3.8%	6.2%	90.4%	3.4%
	6개월-1년 미만	3.5%	85.9%	10.6%	3.5%	87.1%	9.4%
	1년 이상	6.8%	86.5%	6.8%	9.5%	83.8%	6.8%
업종	패스트푸드점	17.0%	78.6%	4.5%	17.9%	79.5%	2.7%
	소규모 음식점	2.2%	92.8%	5.1%	2.2%	92.8%	5.1%
	배달대행업체	3.5%	90.0%	6.5%	2.5%	91.0%	6.5%

○ 배달 부대비용

- 배달 아르바이트 부대비용은 전반적으로 '사업주'(85.9%)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배달 '손실/반품' 처리는 사업주 75.8%, 상황 따라 다름 17.3%, 본인이 일부 부담 8.4%, 본인이 전부 부담 4.9% 순이었음. 이는 다른 아르바이트와 달리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사업장주 간의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서약서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음.

〈표 3-25〉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부대비용

		사업주	본인이 전부 부담	본인이 일부 부담	상황 따라 다름
운송수단 (원동기)	빈도	436	10	2	2
	%	96.9%	2.2%	0.4%	0.4%
주유	빈도	423	12	12	3
	%	94.0%	2.7%	2.7%	0.7%
수리비	빈도	341	13	18	78
	%	75.8%	2.9%	4.0%	17.3%
손실/반품	빈도	317	22	38	73
	%	70.4%	4.9%	8.4%	16.2%
식대	빈도	415	22	7	6
	%	92.2%	4.9%	1.6%	1.3%
합계		85.9%	3.5%	3.4%	7.2%

- 설문조사 결과 배달 아르바이트 부대비용 중 수리비, 손실/반품 항목 중에서 10명 중 3명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연령별로 보면 10대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 집단에서 본인(전부, 일부)부담이 높은 것은 수리비 및 손실/반품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전가일 가능성이 높음.

〈표 3-26〉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수리비 및 손실반품

		수리비				손실/반품			
		사업장(고용주)	본인 전부 부담	본인 일부 부담	상황마다 다름	사업장(고용주)	본인 전부 부담	본인 일부 부담	상황마다 다름
연령대	15-19세	69.0%		6.9%	24.1%	51.7%	13.8%	6.9%	27.6%
	20-24세	73.8%	1.8%	3.0%	21.4%	69.0%	3.0%	7.1%	20.8%
	25-29세	78.9%	4.1%	2.0%	15.0%	78.2%	4.8%	4.1%	12.9%
	30-34세	76.4%	3.8%	7.5%	12.3%	67.0%	5.7%	17.0%	10.4%
근속기간	6개월 미만	74.2%	3.8%	4.8%	17.2%	67.7%	5.8%	8.9%	17.5%
	6개월-1년 미만	83.5%	1.2%		15.3%	76.5%	4.7%	2.4%	16.5%
	1년 이상	73.0%	1.4%	5.4%	20.3%	74.3%	1.4%	13.5%	10.8%
업종	패스트푸드점	80.4%	2.7%	5.4%	11.6%	71.4%	7.1%	8.0%	13.4%
	소규모 음식점	81.9%	3.6%	2.9%	11.6%	68.8%	3.6%	13.0%	14.5%
	배달대행업체	69.0%	2.5%	4.0%	24.5%	71.0%	4.5%	5.5%	19.0%
합계		75.8%	2.9%	4.0%	17.3%	70.4	4.9	8.4	16.2%

○ 업무 상 산재

-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 중 사고 재해 경험은 8.2% 정도였고, 업무상 사고 유경험자 중 ‘산재로 처리함’(5.1%) > ‘본인 처리’(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나마 일반 아르바이트와 달리 산재처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패스트푸드(8.9%)와 소규모 음식점(6.5%)이었고, 신종 배달대행업체(2%)는 상대적으로 산재처리 비율이 낮았음.

〈표 3-27〉 서울지역 배달원 업무 상 산재 사고 경험

		배달 관련 사고재해 유경험자				아니오, 경험 없음
		산재로 처리함	회사에서 처리함	본인처리	본인과 회사가 부담해 처리	
연령대	15-19세					100.0%
	20-24세	1.8%	0.6%			97.6%
	25-29세	8.2%	1.4%	1.4%	1.4%	87.8%
	30-34세	7.5%		4.7%	1.9%	85.8%
업종	패스트푸드점	8.9%	0.9%	0.9%		89.3%
	소규모 음식점	6.5%	0.7%	1.4%	2.2%	89.1%
	배달대행업체	2.0%	0.5%	2.0%	0.5%	95.0%
합계		5.1%	0.7%	1.6%	0.9%	91.8%

○ 산재 처리 방식

- 배달 아르바이트 사고 시 조치 여부는 ‘병원으로 가서 치료’(64.9%) > ‘현장에서 치료’, ‘큰 상처가 아니라고 여겨져서 아무 일 없이 일함’이 각각 16.2% 순으로 나타남. 한편 사고 이후 동일업체에서 일의 지속 여부는 ‘치료를 받으며 계속 일함’(45.9%) > ‘완치 후 계속 일함’(37.8%) 순으로 나타남.

<표 3-28>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산재 처리와 일 수행

		사고 경험 후 조치 및 일 지속 여부							
		다친 후 조치 여부				사고 이후 동일업체 일 지속 여부			
		현장에서 치료	병원 가서 치료	관리자 알렸으나 별다른 치료는 받지 못함	큰 상처가 아니어서 그냥 일함	치료 받으며 계속 일함	완치 후 계속 일함	해고 당함	위험한 일이어 스스로 그만둠
연령대	15-19세								
	20-24세		50.0%	25.0%	25.0%	25.0%	75.0%		
	25-29세	22.2%	66.7%		11.1%	50.0%	33.3%	5.6%	11.1%
	30-34세	13.3%	66.7%		20.0%	46.7%	33.3%	13.3%	6.7%
업종	패스트푸드점	8.3%	58.3%		33.3%	41.7%	41.7%		16.7%
	소규모 음식점	13.3%	73.3%		13.3%	53.3%	33.3%	6.7%	6.7%
	배달대행업체	30.0%	60.0%	10.0%		40.0%	40.0%	20.0%	
합계		16.2%	64.9%	2.7%	16.2%	45.9%	37.8%	8.1%	8.1%

○ 배달 사고 원인

- 배달 아르바이트의 주된 사고 원인은 ‘상대방 운전자 부주의’(34.7%) > ‘제한시간 내 배달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운전’(27.8%) 순으로 나타남.

<표 3-29>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사고재해 경험(단위: 다중응답)

	1+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제한시간 내 배달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운전	20	27.8	12	32.4	8	22.9
뒷 순서 고객 불만 듣기 싫어 무리하게 운전	10	13.9	7	18.9	3	8.6
건 당 추가 인센티브 받기위해 무리하게 운전	9	12.5	5	13.5	4	11.4
오토바이, 헬멧 등 노후 된 장비 때문	2	2.8			2	5.7
상대방 운전자 부주의	25	34.7	13	35.1	12	34.3
경험부족에 따른 운전미숙	6	8.3			6	17.1
합계	72	100	37	100	35	100

- 배달 업종 중 '배달대행업체'에서 '제한시간 내 배달완료'를 위해 무리한 운전(40.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건 당 추가 인센티브 받기위해 무리하게 운전'(20%)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

〈표 3-30〉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사고재해 1순위

		연령대				업종			합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패스트 푸드점	소규모 음식점	배달대행업체	
배달 사고의 주된 원인 1위	제한시간 내 배달완료 위해 무리하게 운전		25.0%	22.2%	46.7%	26.7%	26.7%	40.0%	32.4%
	뒷 순서의 불만을 듣기 싫어 무리하게 운전		25.0%	22.2%	13.3%	26.7%	26.7%		18.9%
	건당 추가 인센티브 받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			16.7%	13.3%	13.3%	13.3%	20.0%	13.5%
	상대방 운전자 부주의		50.0%	38.9%	26.7%	22.2%	33.3%	40.0%	35.1%

○ 배달 안전교육 및 보호 장비

-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 안전교육은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조사 결과 '별도의 교육시간 없이 주의사항 전달'(49.3%) > '다른 경험 있는 동료가 일하는 중간에 알려줌'(29.3%) > '별도 교육시간에 직원 교육'(12.9%) 순이었음.
- 따라서 배달 아르바이트 안전교육이 매우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임. 특히 연령대 '15-19세'에서 '따로 설명 없이 안내문만 받음'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청소년에게 매우 취약한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31〉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안전교육

		배달 아르바이트 시작 전 안전교육 유무				
		따로 마련된 교육시간에 직원이 교육	따로 마련된 교육시간 없이 주의사항 전달	다른 경험 있는 동료가 일하는 중간에 알려줌	따로 설명 없이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문만 받음	안전교육이나 언급을 전혀 받지 않음
연령대	15-19세	13.8%	65.5%	6.9%	13.8%	
	20-24세	14.3%	51.8%	20.8%	9.5%	3.6%
	25-29세	12.9%	44.9%	40.1%	0.7%	1.4%
	30-34세	10.4%	47.2%	34.0%	3.8%	4.7%
업종	패스트푸드점	17.0%	41.1%	33.0%	7.1%	1.8%
	소규모 음식점	8.0%	50.0%	34.1%	5.1%	2.9%
	배달대행업체	14.0%	53.5%	24.0%	5.0%	3.5%
합계		12.9%	49.3%	29.3%	5.6%	2.9%

○ 배달 주요 보호 장비

- 배달 아르바이트 안전보호 장비 지급 관련한 설문에서, 안전모, 무릎보호대, 고글, 안전장갑은 지급되고 있으나 주로 ‘안전모(56.1%)’, ‘무릎보호대(43.9%)’ 2종만 지급되고 고글 및 안전장갑은 전혀 지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2〉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보호 장비 이용

		빈도	퍼센트
어떤 보호구를 주로 착용하나	안전모(헬멧)	1,001	56.1
	무릎보호대	783	43.9
	고글(안경)	-	-
	안전장갑	-	-
	합계	1,784	100.0

-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안전모 및 무릎보호대 장비는 주로 ‘20-24세’(37.4%)에서 많았고, 업종 유형 중에는 ‘배달대행업체’(41%)에서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3〉 서울시 배달 아르바이트 보호 장비 이용(단위: %)

	연령대				업종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패스트푸드점	소규모 음식점	배달대행업체
안전모(헬멧)	6.9	37.0	35.1	21.1	25.4	27.6	47.1
무릎보호대	6.0	38.1	29.2	26.7	24.3	34.7	41.0
합계	6.5	37.4	32.5	23.5	24.9	30.7	41.0

- 배달 보호 장비는 사업주가 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1명은 개인적으로 보호 장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보호 장비 관련 실태를 보면 ‘개인적으로 사서 이용’(9.3%) > ‘사업장에서 보호 장비 구매 후 이용’(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개인적으로 사서 이용’응답자 중 연령대 ‘15-19세’, ‘25-29세’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34〉 서울시 배달 아르바이트 보호 장비 이용

		보호 장비 어떻게 이용하였는가.				
		사업장의 보호 장비 무료대여	사업장의 보호 장비 사용료 내고 빌림	사업장에서 보호 장비 구매 후 이용	개인적으로 사서 이용	보호 장비 없이 일함
연령대	15-19세	86.2%			13.8%	
	20-24세	88.1%	1.8%	2.4%	7.1%	0.6%
	25-29세	83.7%	0.7%	2.0%	12.2%	1.4%
	30-34세	89.6%	0.9%	0.9%	7.5%	0.9%
업종	패스트푸드점	88.4%		2.7%	8.0%	0.9%
	소규모 음식점	87.7%	0.7%	1.4%	9.4%	0.7%
	배달대행업체	85.5%	2.0%	1.5%	10.0%	1.0%
	합계	86.9%	1.1%	1.8%	9.3%	0.9%

4)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1) 폭언·차별 경험

○ 불쾌한 언행

- 배달 아르바이트 종사자 중 폭언·폭행·성희롱 유경험자는 17.3% 정도 있었음. 폭언·폭행·성희롱·따돌림의 경험 중에서 ‘폭언’이 가장 많았고, 배달 아르바이트에 대한 폭언의 가해자 비율은 ‘고객’(64.2%) > ‘상급자’(24.5%) > ‘고용주’(11.3%) 순으로 나타남. 결국 우리 사회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감정노동 문제는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결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중 업무상 폭언 유경험자 중 대응 방식(1순위)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참고 넘긴다’(97.4%)로 가장 많음.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폭언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이에 대한 해소 프로그램이나 교육(없음 92.3%)가 필요한 실정임. 특히,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 중 폭언 유경험 비율은 ‘배달대행업체’(7.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 ‘25-29세’(6%)에서 높게 나타남.

〈표 3-35〉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폭언·폭행·성희롱 문제

		폭언·폭행·성희롱 경험						
		경험유무		폭언	대응 1순위		해소 프로그램 교육경험	
		그렇다	아니다		대부분 개인적으로 참고 넘긴다	동료, 선후배 상사주위 도움요청	없었다	휴식시간 제공 받았음
연령대	15-19세	20.7%	79.3%	1.3%	100.0%		100.0%	
	20-24세	13.1%	86.9%	4.9%	95.5%	4.5%	90.9%	9.1%
	25-29세	18.4%	81.6%	6.0%	100.0%		96.3%	3.7%
	30-34세	21.7%	78.3%	5.1%	95.7%	4.3%	87.0%	13.0%
업종	패스트푸드점	19.6%	80.4%	4.9%	95.5%	4.5%	81.8%	18.2%
	소규모 음식점	17.4%	82.6%	5.3%	95.8%	4.2%	100.0%	
	배달대행업체	16.0%	84.0%	7.1%	100.0%		93.8%	6.3%
합계		17.3%	82.7%	17.3%	97.4%	2.6%	92.3%	7.7%

<표 3-36>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폭언 가해 주체

	빈도	퍼센트
상급자	26	24.5%
고용주	12	11.3%
고객	68	64.2%
합계	106	100.0%

○ 부당 차별 경험

-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중 일을 하면서 차별 경험은 연령(나이) 차별이 4.2% 정도로 가장 많았음. 배달 아르바이트 근속기간 '6개월-1년 미만'(10.6%)로 연령차별이 높게 나타남. 또한 연소근로자인 '15-19세'에서도 연령차별(10.3%)이 높게 나타남. 이를 볼 때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 숙련도보다 연령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험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표 3-37> 서울지역 배달원 부당한 차별 사유

		부당한 차별 사유			
		외모 신체	나이	성별	학력/학벌
연령대	15-19세		10.3%		3.4%
	20-24세	1.2%	4.8%	0.6%	
	25-29세	0.7%	5.4%		1.4%
	30-34세	0.9%			
근무기간	6개월 미만	1.0%	3.4%	0.3%	0.7%
	6개월-1년 미만		10.6%		1.2%
	1년 이상	1.4%			
업종	패스트푸드점	1.8%	5.4%	0.9%	0.9%
	소규모 음식점	0.7%	5.1%		
	배달대행업체	0.5%	3.0%		1.0%
합계		0.9%	4.2%	0.2%	0.7%

- 배달 아르바이트 차별의 영역별 세부 항목 중 '의사표현'(6.7%)과 '업무 및 배치'(3.3%)의 차별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일을 하면서 의사표현의 차별 중에서 '여성'(28.6%)과 연소자(15세-19세, 13.8%)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인 연소자와 여성이 부당한 대우 배달 아르바이트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표 3-38〉 서울지역 배달원 부당한 차별 내용

		부당한 차별 내용						
		업무 배치	고용	노동 조건	교육 훈련	복지 후생	조직 문화	의사 표현
성별	여성	14.3%		7.1%		7.1%		28.6%
	남성	3.0%	0.5%	2.3%	0.2%	1.6%	0.7%	6.0%
연령대	15-19세	3.4%						13.8%
	20-24세	3.6%	1.2%	2.4%		1.8%	1.2%	7.1%
	25-29세	4.8%		3.4%		1.4%	0.7%	6.1%
	30-34세	0.9%		1.9%	0.9%	2.8%		4.7%
업종	패스트푸드점	2.7%	0.9%				0.9%	7.1%
	소규모 음식점	5.1%	0.7%	3.6%	0.7%	2.9%	0.7%	7.2%
	배달대행업체	2.5%		3.0%		2.0%	0.5%	6.0%
합계		3.3%	0.4%	2.4%	0.2%	1.8%	0.7%	6.7%

(2) 권리인식

○ 상담 및 도움기관 인지

-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노동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3분의 2(63.8%)정도는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것 알고 있었음. 하지만 공공과 민간 영역별 상담 및 구제기관·시설·단체 인지도를 보면 ‘정부 중앙기관 및 센터’가 62.9%로 높게 나타남

〈표 3-39〉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상담 및 도움기관 인지

		노동권리 침해 도움기관 인지 여부		기관, 시설, 단체 (알고 있음)				
		그렇다	아니오	노동부, 교육부 등 중앙기관 및 센터	서울시·구 지자체 기관 및 센터	민간 노동상담 센터 및 안 심알바신 고센터	민간노동 법률및 총기관	청소년, 청년 및 노 동관련 단 체
성별	여성	21.4%	78.6%	42.9%	14.3%		14.3%	7.1%
	남성	65.1%	34.9%	63.5%	25.2%	27.1%	15.1%	13.3%
연령대	15-19세	48.3%	51.7%	48.3%	24.1%	24.1%	10.3%	17.2%
	20-24세	65.5%	34.5%	69.0%	17.9%	23.8%	11.3%	14.3%
	25-29세	69.4%	30.6%	62.6%	27.9%	27.9%	19.0%	9.5%
	30-34세	57.5%	42.5%	57.5%	32.1%	28.3%	17.0%	15.1%
업종	패스트푸드점	67.9%	32.1%	66.1%	27.7%	33.9%	18.8%	21.4%
	소규모 음식점	56.5%	43.5%	56.5%	25.4%	26.1%	15.2%	8.7%
	배달대행업체	66.5%	33.5%	65.5%	23.0%	22.0%	13.0%	11.5%
합계		63.8%	36.2%	62.9%	24.9%	26.2%	15.1%	13.1%

- 반면에 실제 배달 아르바이트의 업무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관 (민간노동상담 센터 및 안심알바신고센터) 혹은 일하는 지역 내 접근성이 높은 도움을 줄 있는 기관(지자체 기관 센터 및 청소년·청년 노동 단체)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편임.

○ 배달 아르바이트 개선의견

- 현재 배달 아르바이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1,2순위 합계)으로는 ‘시간 배달 제 폐지’(18.9%) > ‘수당 시스템 개선’(16.2%) 순으로 나타났음. 1순위 의견에서는 ‘시간 배달 제 폐지’(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 의견에서는 ‘수당 시스템 개선’(1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3-40〉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상담 및 도움기관 인지

	1+2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시간 배달 제 폐지	170	18.9	140	31.1	30	6.7
충분한 안전 수칙 교육	107	11.9	56	12.4	51	11.3
오토바이 면허취득 나이 상향 조정	62	6.9	23	5.1	39	8.7
수당 시스템 개선	146	16.2	61	13.6	85	18.9
부족한 배달 인력 충원	115	12.8	58	12.9	57	12.7
보호 장비 지급	47	5.2	18	4.0	29	6.4
오토바이 정기수리	91	10.1	44	9.8	47	10.4
배달물품 반품/손실 책임자 변경	102	11.3	41	9.1	61	13.6
배달원에 대한 사업주 및 고객태도 개선	60	6.7	9	2.0	51	11.3
합계	900	100	450	100	450	100

- 특히 배달 업종 중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시간제 배달 폐지’ 의견(35.7%)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또한 소규모 사업장은 부족한 인력문제(18.1%)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배달대행업 사업장은 수당개선(18%)과 배달 물품 반품/손실(11.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3-41〉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사고방지 개선(1순위)

	연령대				업종			합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패스트 푸드점	소규모 음식점	배달대행 업체	
시간 배달제 폐지	27.6%	27.4%	26.7%	30.2%	35.7%	34.1%	26.5%	31.1%
충분한 안전 수칙 교육	10.3%	13.7%	12.9%	10.4%	12.5%	12.3%	12.5%	12.4%
오토바이 면허취득 나이 상향조정	6.9%	5.4%	4.8%	4.7%	3.6%	6.5%	5.0%	5.1%
수당 시스템 개선	%	13.7%	15.0%	15.1%	14.3%	6.5%	18.0%	13.6%
부족한 배달 인력 충원	17.2%	11.3%	10.9%	17.0%	8.0%	18.1%	12.0%	12.9%
보호 장비 지급	13.8%	2.4%	2.0%	6.6%	5.4%	4.3%	3.0%	4.0%
오토바이 정기 수리	13.7%	14.3%	7.5%	4.7%	11.6%	8.0%	10.0%	9.8%
배달 물품 반품 / 손실 책임자 변경	6.9%	11.9%	8.2%	6.6%	7.1%	7.2%	11.5%	9.1%
사업주 및 고객의 태도 개선	3.4%		2.0%	4.7%	1.8%	2.9%	1.5%	2.0%

5. 요약 및 합의

1) 요약

○ 변화하는 배달업의 시장변화 - 배달업, 배달중개(대행)업

- IT산업의 발전으로 산업구조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배달업은 전통적인 전화 주문 방식의 오프라인 방식이 아닌, 모바일 앱(APP) 방식의 온라인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음. 실제로 주요 대중 매체들에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 등 주요 온라인 배달 서비스 업체의 CF 광고들을 일상으로 접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음.
- 우리나라 주요 신종 배달 업체와 배달중개업체는 배달형태와 유형을 중심으로 △배달 주문중개(매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 114, 배달 365, 메뉴박스, 디톡), △음식 배달대행(나눔콜), △배달주문 및 대행(푸드플라이, 배민 라이더스), △토탈 배달대행(핑동, 배달요, 바로고몰), △배달인력중개(일당백) 5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문제는 우리나라 주요 신종 배달업과 배달중개업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청년(15세~34세)의 고용과 노동조건의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임.
<표 5-1>과 <표 5-2>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주요 신종 배달업과 배달중개업체 다수에서 기초 고용질서라고 명명하고 있는 근로계약 체결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됨.
- 더불어 취약계층의 대표적인 사회적 배제 현상을 지적되고 있는 사회보험 적용(가입)도 5개 기업 중 2개는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또한 근로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는 곳들이 많다보니 근무시간도 협의 후 결정 상태로 진행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었음. 이런 이유로 휴게시간이나 여타의 노동시간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다보니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 관련 문제도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개연성이 높음.

- 설문조사와 비슷하게 확인된 사항 중 하나는 배달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노동생활세계의 문제임. 현재 거의 대부분 5일에서 6일 정도의 장시간 노동(설문조사 : 1주일 평균 48.3시간)을 하고 있음. 이는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체계상 시급제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성과 실적을 연동된 배달 수당이 존재하고 있으며, 신종 배달업의 경우 기본급 없이 수수료(실적제)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게다가 신종 배달 및 배달대행업체와 노동자들은 기존 근로계약 대신 새로운 고용관계 형태(위장된 자영화 : 개인 사업자, 목시적 고용)를 띄고 있으면서 업무상 과실(손실/물품/운송수단)은 개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서약서'(사실상 위약계약 서면 45%, 구두 24%)를 작성하고 있음.

〈표 5-1〉 신종 배달업 및 배달중개업 아르바이트 종사자 노동조건 I

구분	업체	급여체계	체불문제	근무시간	근로일	사회보험		
전국	배달대행	나눔콜	마포	건별	x	협의 후 결정	주6일	미가입
		중구		시급	x	협의 후 결정	협의	가입
서비스	배달주문 + 배달대행	배민라이더스 (배달의민족)		월급	o	주52시간	주6일	가입
		배달요 (배달대행)		건별		협의	주3-5일 선택	미가입
지역	배달대행	딩동		건별	x	12시간	주6일	
		푸드플라이		건별	x	최소 10시간	평균 5.5일	가입

〈표 5-2〉 신종 배달업 및 배달중개업 아르바이트 종사자 노동조건 II

구분	업체	종사자 규모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교부	휴게 시간	초과 근무		
전국 서비스	배달대행	나눔콜	마포	7~8명	x	x	알아서	x
		중구						
지역	배달주문 + 배달대행	배민라이더스 (배달대행)			o	x	없음	x
		배달요 (배달대행)			o	x	알아서	x
		딩동		40여 명	x	x	알아서	x
		푸드플라이		70여 명	o	x	알아서	x

* 주: 해당 체크리스트는 연구원이 개별 기업 사례조사 및 배달 아르바이트 면접조사를 통해 종합 정리한 것임. 다만, 각 업체별로 본사 직영 운영 및 가맹 운영 방식에 따라 기초 고용현황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5-1> 과 <표 5-2> 동일

○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시장 실태

- 현재 배달 아르바이트 일하는 이유는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42.9%, 배달대행 36.5%)였으나, 다른 일을 하고 싶었으나 구하지 못해도 23.3%(배달대행 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배달 아르바이트 평균 근속기간은 0.6년 동안 배달 아르바이트(배달대행 0.6년)로 일하고 있었음.
- 현재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총일을 한 경험은 평균 3.2회(배달대행 4.5회, 25세 이상 3.4회, 20-25세 2.9회, 10대 2.2회)였고, 총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은 2.6년(배달대행 2.9년, 4년 이상 아르바이트 경험 19.6%)이었음. 배달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6,659원(실적 건당 3,357원)이었고, 배달대행 아르바이트 시급은 6,770원이었음.

<표 5-3>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고용형태 및 임금지급 형태

	고용형태		임금지급 형태			
	기간제 계약직	단시간 (파트타임)	시급제	일당제	실적제 (건당)	월급제
패스트푸드점	15.2%	84.8%	66.1%	19.6%	.9%	13.4%
소규모 음식점	25.4%	74.6%	40.6%	42.8%	2.2%	14.5%
배달대행업체	22.0%	78.0%	57.0%	30.0%	5.0%	8.0%
전체	21.3%	78.7%	54.2%	31.3%	3.1%	11.3%

- 배달 아르바이트 고용형태는 기간제 계약직이 21.3%(배달대행 22%)보다는 단시간 파트타임 형태(78.7%, 배달대행 78%)가 3배 정도 많은 편임. 이를 반영하듯 임금 지급 형태는 시급제(54.2%, 배달대행 57%)와 일당제(31.3%, 배달대행 30%)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배달대행업의 경우 실적제 비율이 5%로 다른 업종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배달 노동의 시간제 배달 완료 시스템과 배달 수당이라는 체제와 맞물려, 아르바이트 교통사고 유발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표 5-4〉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시간 분포

	노동시간		노동시간 세부 분포			
	40시간미만	40시간 이상	35시간미만	35시간 -48시간미만	48시간 -52시간미만	52시간 이상
패스트푸드점	40.2%	59.8%	26.9%	14.8%	12.0%	46.3%
소규모 음식점	27.5%	72.5%	19.9%	12.5%	10.3%	57.4%
배달대행업체	44.5%	55.5%	24.6%	26.2%	9.4%	39.8%
전체 평균	38.2%	61.8%	23.7%	19.1%	10.3%	46.9%

-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시간 상황을 보면, 1주일 동안 일하는 날은 평균 5.6 일 정도였고, 1주일 근로시간은 48.3시간이었음. 배달 아르바이트의 1일 근로시간은 평균 8.6시간 정도였고, 대기시간은 18.8분, 휴게시간은 26.6분, 식사시간은 32.8분 정도였음. 문제는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이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의 전형적 모습의 양태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점임.
-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 중 주 40시간의 법정 노동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61.8%(배달대행 55.5%)나 되었고,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의 비율도 46.9%(배달대행 39.5%)나 되었음. 아울러 배달 노동자 중 주말 거의 매주 일하는 비율이 86.9%(배달대행 89%)나 되는 상황은 아르바이트 청년노동이 이제는 하나의 직업군(학업 중퇴, 졸업자 장시간 근로)으로 자리 잡는 상황과 일과 삶의 균형 (WEB)을 파괴하는 상황까지 온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⁴⁾
-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사회보험 적용률은 약 14.4% 수준으로 우리나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15.3)의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률(30%~35% 수준)의 절반 수준이며, 2015년 서울시 지하철 임대배장 아르바이트에 비해서도 절반 정도 임. 배달 아르바이트 사회보험 적용률은 고용보험 12.2%(배달대행 8.5%), 산재보험 32.7%(배달대행32%), 국민연금 6.4%(배달대행 3.5%), 건강보험 6.2%(2.5%) 수준이었음.

4) 450명의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 청년 중 현재 고등학교 재학(2.7%, 1주 28.1시간 근로), 2-3년제 대학 재학(3.8%, 1주 32.7시간 근로), 4년제 대학 재학(2.9%, 1주 30시간 근로)로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비율이 9.4%나 되었음.

○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주요 결과 -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들

- △ 근로계약 서면체결 및 교부 위반 36.7%(배달대행 63.3%)
- △ 법정 최저임금(5,580원) 미지급 3.5%(배달대행 6%)
- △ 정해진 기간에 임금 지급받지 못한 체불경험 11.6%(배달대행 12%)
- △ 법정 초과 근로 가산임금(1.5배) 미지급 26.7%(배달대행 19%)
- △ 15시간 이상 약정한 당사자, 주휴수당 미지급 51.5%(배달대행 36.9%)

<표 5-5>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임대매장 기초 고용 준수 위반 및 실태

	근로계약서 미체결	최저임금 미지급	체불 경험	초과근로 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위반	36.7%	3.5%	11.6%	26.7%	51.5%
적용	64.3%	96.5%	88.4%	44.4% [미해당 28.9]	29.3% [모름 10.3%]

<표 5-6>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권리, 부당 대우, 침해 실태

	분실물손실 본인 책임 서약	꺾기/조퇴 업무 중단	대체 인력 구인까지 근무	부당지시 명령	급여명세서 미수령
경험/해당	72.9%	4.5%	42.0%	42.9%	64.9%
미경험/미해당	27.1%	95.5%	58.0%	57.1%	24.2%

○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및 개선 문제 - 부당대우, 침해 성격

- △ 분실, 손실 책임 아르바이트 책임 서약 72.9%(배달대행 79%)
- △ 대체 인력 구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근무 상황 42%(배달대행 %)
- △ 업무 중간에 꺾기나 조퇴 경험 4.5%(배달대행 3.5%)
- △ 업무 이외의 부당 업무나 지시 경험 42.9%(배달대행 41.5%)
- △ 급여명세서 미 수령 64.9%(배달대행 61%)
- △ 업무상 수리비용 처리방식 '본인 전부 + 일부 부담' 6.9%(배달대행 6.5%)
- △ 업무상 손실 비용 처리방식 '본인 전부 + 일부 부담' 13.3%(배달대행 10%)
- △ 고객으로부터 폭언 유경험 17.3%(배달대행 16%)

○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주요 핵심 문제 - 산업안전과 재해 및 교육

△업무 상 사고 유경험 8.2%(배달대행 5%) → 산재처리 5.1%(배달대행 2%)

△교통사고 원인 ‘시간제 배달 운전’ 32.4%(배달대행 40%)

‘건당 인센티브제’ 13.5%(배달대행 20%)

→ 개선방안 의견 ‘시간제 폐지’ 31.1%(배달대행 26.5%)

‘수당제 개선’ 13.6%(배달대행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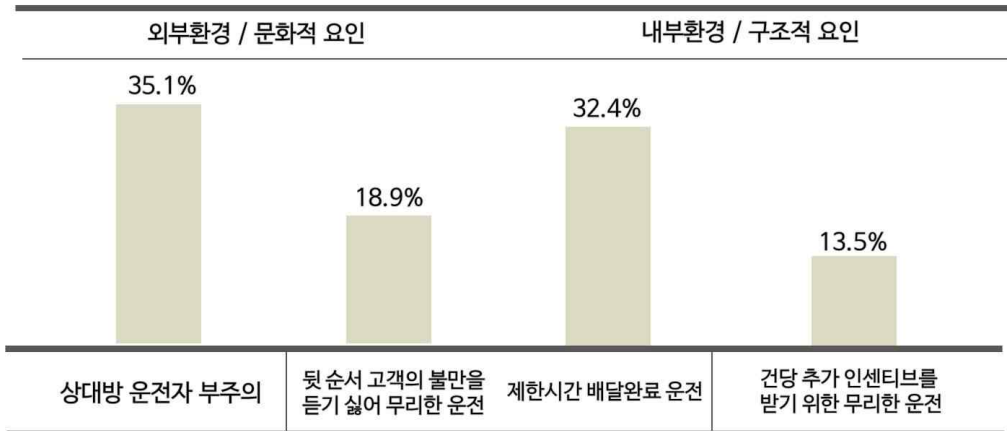
△직원 안전교육 이수율 12.9%(배달대행 14%)

△안전보호 장비 ‘안전모 지급’ 27.8%(배달대행 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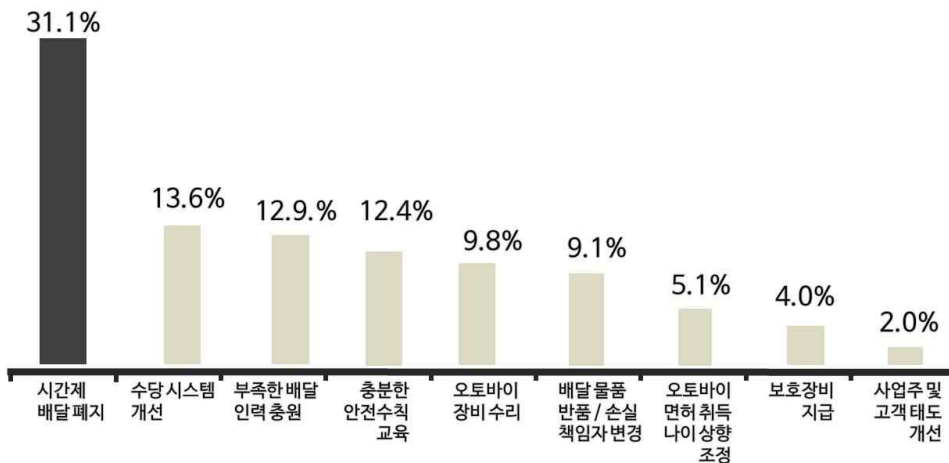
‘무릎보호대 지급’ 71.3%(배달대행 41%)

△보호 장비 개인 구매/사용료 지급 후 대여 12.2%(배달대행 13.5%)

[그림 5-1]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교통사고 원인 의견(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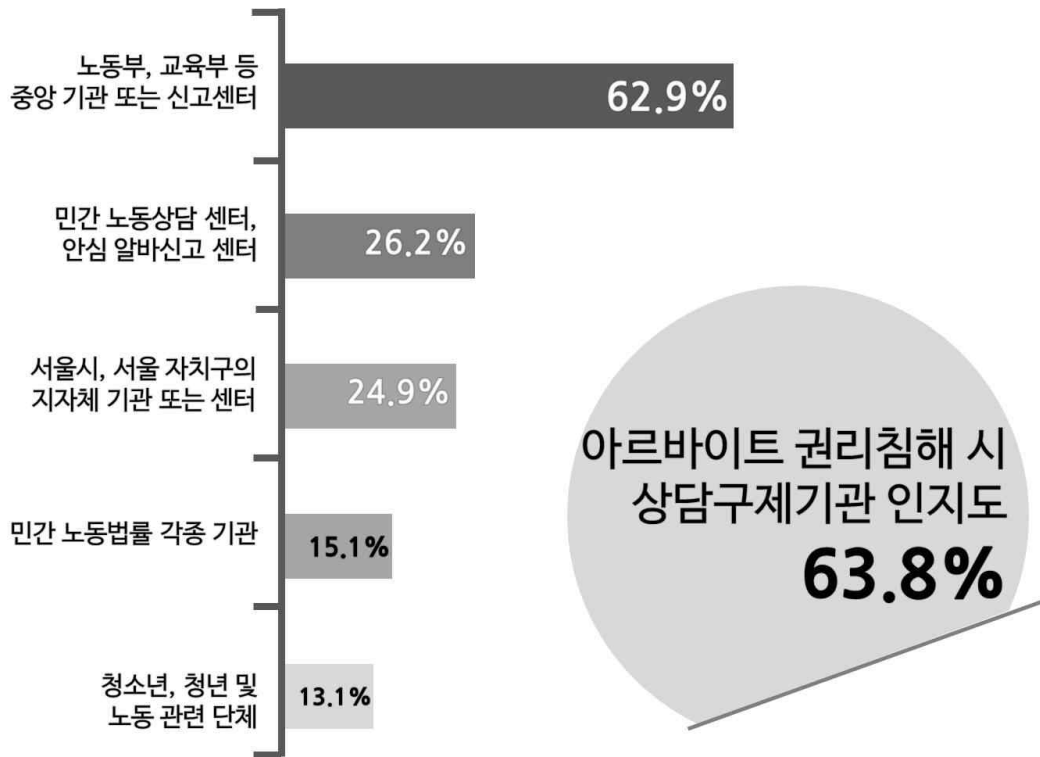
[그림 5-2]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일과 관련 정책개선 의견(단위: %)



○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상담 및 구제기관 인지도

- △ 노동권리 침해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인지여부 63.8%(배달대행 66.5%)
- △ 중앙부처 권리구제 상담 기관 인지도 62.9%(배달대행 62.9%)
 - ↔ 서울시 및 자치구 권리구제 상담기관 인지도 24.9%(배달대행 24.9%)
- △ 민간 노동 상담 센터, 안심알바신고센터 인지도 26.2%(배달대행 26.2%)
- △ 민간 노동법률 각종 기관 인지도 15.1%(배달대행 15.1%)
- △ 청소년, 청년 및 노동 관련 단체 인지도 13.1%(배달대행 13.1%)

[그림 5-3]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 상담 구제기관 인지도(단위:%)



(2) 정책방향

○ 변화하는 산업과 탈고용의 규제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의 법제도 수립

- 전 세계적으로 산업구조 변화와 서비스산업의 발달, IT 및 정보기술의 발전, 시장경쟁 심화로 기업의 고용 및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이와 같은 새로운 고용계약 방식 및 종사자가 등장 및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이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기반을 둔 사용자 의무와 규제를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가장 효율적인 경영 및 운영 방식임. 특히 노동 법률상의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벗어날 수 있기에 점차 고용 패턴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나, 국내 기존 법률과 판결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
- 만약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 신종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청년 노동자들이 일반적인 자영업자(self-employed workers in general)나 자유직업 종사자(those who practise liberal professions)와 같은 '집단'으로 구분/분류될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 등 기본적인 법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밖에 없음. 국제노동기구(ILO)는 이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인 계약노동(1997년 총회)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labor needing protection, 2006년 총회)의 심각성을 이미 각 나라들에게 보호조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한바 있음.⁵⁾

5) 국제노동기구(ILO) 2006년 95차 총회에서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를 채택했고, '위장된 고용관계(disguised employment relationship)'가 노동자에게 주어진 법적 호보를 무력화시키거나 약화시키며, 고용자에게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거나 고용주의 정체를 감추게 함으로써 고용관계를 왜곡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위장된 고용관계는 가장 극단적으로 민사계약, 상업계약 등 다른 법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외양으로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가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사실 국가인권위원회(2007)에서도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관련한 제도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의견을 제시한바 있음.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표명」(2007. 10. 16)을 했으나, 정부는 일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정도의 낮은 수준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수준임.⁶⁾ 하지만 현재의 노동 상황은 기존의 법제도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의 사각지대가 배달 앱과 같은 유사 산업과 노동시장에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이에 국회, 정부(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는 현재의 IT, 모바일 앱과 연동하여 변화하는 배달업 노동시장의 노동 보호를 위한 산업 정책의 규제와 보호 법률을 마련(특히 관계부처의 배달업 시장 규제 정책)할 필요가 있음.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과정에서 특화 되는 노동이 증가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위장된 고용관계의 척결'(combating)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자본과 기업은 시장 선호대로 노동시장을 재편할 것이기 때문임.

○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현실 - 속도 전쟁과 자본의 희생?

- 우리나라 아르바이트 노동현장은 근로계약서 미체결,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그리고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1.5배) 등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상 법률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런 문제로 지난 몇 년간 정부(중앙, 지방)는 물론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통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대책을 요구했으나 눈에 띄는 정책효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임.
- 배달 아르바이트는 기존의 아르바이트와는 다른 형태의 일, 즉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 아르바이트의 경우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산업안전 차원에서도 몇 차례 언론을 통해 그 심각성이 제기된바 있음. 특히 2011년 청년유니온의 '30분 피자배달 보증제도' 폐지가 공론화 된 이후, 배달 과정의 서비스 제공 속도 인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교통사고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된바 있음.⁷⁾

6) 주요 내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해석되는 자가 아니면서, 특정한 노무제공 상대방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수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그 사업주에게 의존하는 자로서, 근로자와 유사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 설정한 것임.

7) 사실 그간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현장은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제기된바 있음. 지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총 2,554명의 청소년이 음식 배달 중 교통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시장 현실을 보면 기본적인 법제도 미준수(위반)부터 노동인권의 부당대우나 처벌이 확인되고 있음. 특히 배달 아르바이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배달 운영상의 제도적 메커니즘1(제한된 배달 시간동안 업무 완수) + 배달 고용 및 임금체제의 제도적 메커니즘2(고용관계의 특고화 → 임금체제 건별 수수료제, 기존 아르바이트 시급제 + 수당제)때문임.
- 결국 정부에서 현재의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인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배달업 시장 규제 정책을 통한 노동시장의 보호방안이 최선의 정책이 될 수 있음. 물론 현재 기존 아르바이트 노동시장과 동일한 법제도 위반 현상(근로계약 미체결 및 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초과근로 및 주휴수당 미지급 등)이나 부당한 제도적 확대(위약계약 및 불합리한 표준계약 문제, 교통안전 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 보호 장비나 수리비 등의 종사자 전가 문제 등)은 특별 근로감독이나 모니터링을 통해 가장 최소한의 요건인 근로기준법 준수라는 정부의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지자체 차원의 역할이 노동 영역에서는 일정한 한계(노동영역 국가 사무)가 있기에 현재의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함. 예를 들면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기초 고용질서, 안전사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상담 및 감정/정신노동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각 업체들과 업무 협약(MOU)을 통한 정책을 구현하는 것도 모색해 볼 수 있음.

사고로 산재를 당했고, 그 중 53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매월 약 42.5명 510.8명) 정도의 배달 아르바이트 사고가 있었고, 월 평균 약 10.6명(53명) 정도의 아르바이트 사망자가 발생한 것임(2015.8.24.,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보도자료).

참고문헌

도서 및 보고서

김형택. 2015, 『옴니채널 & O2O 어떻게 할 것인가? : 온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진 시대의 마케팅 전략』, e비즈북스.

박민우. 2015, 「O2O 옴니채널과 커머스를 위한 핀테크 서비스 전략 방안」, KT경제경영연구소 Issue&Trend(2015.05.07.)

KT경제경영연구소. 2015, 「2015년 ICT 10대 주목 이슈」, KT경제경영연구소 연구보고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11, <살기 위해 노동한다!>, 청소년 배달노동실태보고(2011.5.19.)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14, <청소년의 목소리를 찾아서> -십대, '밀바닥노동' 실태조사 보고대회-(2014.3.6.)

뉴스 기사

배달앱 등장 5년...급성장의 '명과 암'(연합뉴스 2015.5.10.)

배달앱 전쟁의 내막...광고 용단폭격하고 짜장면 몇그릇 팔았을까(한겨레 2015.5.15.)

150억 인수 제안을 거절한 이유: 핑동 윤문진 대표 인터뷰(2015년 9월 18일 by 리승환)

같은 치킨·피자 배달해도...배달앱 알바는 산재 안돼(경향 2015.10.11.)

[짜장뉴스]'오토바이 심부름'이 연봉 8000만원...'열정페이' 역발상(아시아경제 2015.1.23.)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은 근로자 아니다"... 법원 판결 계기로 본 '온디맨드 서비스' 명암(동아 2015.10.13.)

[이슈토크 썬] 46회 배달앱 수수료 전쟁 #2014.11.22

[사회] '배달 앱' 이어 '일당 앱'까지..."남는 게 없어요" (SBS8뉴스|2015.03.08.)

<별첨자료>

배달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실태 - 전국, 서울

1. 배달업 산업구조와 현황

1) 분석대상

○ 배달업의 산업구조를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하기 위해 ‘늘찬 배달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고,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전국사업체 조사(2013) 원 자료를 이용했음.

○ 배달업 정의와 구분

- 이 자료에서 정의하는 ‘배달업’과 정확하게 그 범위와 규모가 일치하는 산업은 없으나, 통계청의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세 분류로 분류되는 ‘늘찬 배달업(49402)’을 가장 유사한 산업으로 볼 수 있음.

<표 1> ‘늘찬 배달업’ 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항목명
H				운수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4		소화물 전문 운송업
			49402	늘찬 배달업

자료: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 ‘늘찬 배달’

- ‘퀵서비스(quick service)’를 우리말로 순화해서 이르는 말이며, ‘늘찬 배달업’은 “도시 간 택배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 도시 내에서 소화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산업 활동”을 말함(통계청 모바일 홈페이지).

2) 배달업의 규모와 형태

□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표 2〉 '늘찬 배달업'의 사업체 수와 성별 종사자 수(전국, 서울)

행정구역	총 사업체수	종사자 수		
		남성	여성	계
전국	1,218	7,068 (85.5%)	1,197 (14.5%)	8,265 (100%)
서울특별시	538	3,009 (84.3%)	562 (15.7%)	3,571 (100%)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13)

- 전국에는 1,218개의 늘찬 배달업 사업체가 있으며, 그 중 44.2%(538개)의 사업체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음. 늘찬 배달업 종사자는 전국 8,265명의 종사자 중 43.2%(3,571명)가 서울에서 일하고 있음.
- 늘찬 배달업 종사자 중 85.5%가 남성으로, 여성(14.5%)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아 늘찬 배달업은 남성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임. 서울 늘찬 배달업 종사자 성별 분포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거나, 여성의 비중(15.7%) 전국(14.5%)에 비해 1.2%p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조직형태

〈표 3〉 늘찬 배달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전국, 서울): 조직형태별

행정 구역	전체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 이외법인		비법인 단체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국	1218	8,265	1,129	6,714	81	1,477	1	21	7	53
	100%	100%	92.7%	81.2%	6.7%	17.9%	0.1%	0.3%	0.6%	0.6%
서울 특별시	538	3,571	487	3,090	48	442	1	21	2	18
	100%	100%	90.5%	86.5%	8.9%	12.4%	0.2%	0.6%	0.4%	0.5%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13)

- 조직형태에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상법상의 주식·유한주식·유한·합자·합명회사를 일컫는 회사법인, ㉢사립학교, 사립의료법인, 특수법인 등의 회사의외법인,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비법인 단체가 있음.
- 서울지역 늘찬 배달업 사업체에서는 개인사업체가 90.5%, 회사 법인이 8.9%, 회사의외법인이 0.2%, 비법인단체가 0.4%이며, 사업체 중 대부분이 개인사업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서울지역 늘찬 배달업 종사자 중 86.5%가 개인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회사 법인에서는 12.4%, 회사의외법인에서 0.6%, 그리고 비법인 단체에서 0.5%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음.
- 늘찬 배달업 회사법인 사업체는 비중(8.9%)이 적은 것에 비해 많은 종사자(12.5%)를 고용하고 있음.

□ 사업체 구분

〈표 4〉 ‘늘찬 배달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전국, 서울): 사업체 구분별

행정 구역	전체		단독사업체		공장·지사		본사·본점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국	1,218	8,265	1,201	7,803	10	132	7	330
	100.0%	100.0%	98.6%	94.4%	0.8%	1.6%	0.6%	4.0%
서울 특별시	538	3,571	532	3,506	4	28	2	37
	100.0%	100.0%	98.9%	98.2%	0.7%	0.8%	0.4%	1.0%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13)

- 사업체 구분으로는 ㉠본사나 지사가 없는 단독사업체, ㉡본사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공장·지사, ㉢영업소나 지사 등을 두고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본사·본점이 있음.
- 서울지역 늘찬 배달업 사업체 중 98.9%가 단독사업체이고, 0.7%가 공장·지사이며 본사·본점이 0.4%임.
- 늘찬 배달업 종사자는 98.2%가 단독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0.8%가 공장·지사
에서, 그리고 본사·본점에서 1.0%가 일하고 있음.

□ 종사자 규모

〈표 5〉 ‘늘찬 배달업’ 사업체와 종사자 비중(전국, 서울): 종사자 규모별

행정 구역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명 이상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명 이상
전국	58.4%	22.8%	12.5%	5.3%	1.1%	17.3%	22.0%	23.5%	21.0%	16.2%
서울 특별시	53.7%	25.5%	13.4%	6.9%	0.6%	16.4%	25.0%	25.7%	28.1%	4.8%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13)

- 서울지역 늘찬 배달업 사업체 중 79.2%가 종사자 규모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이고, 10-19명이 13.4%이며, 20명 이상이 7.5%임.

- 한편, 서울지역 늘찬 배달업 종사자 중 16.4%가 1-4명 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5-9명이 25.0%, 10-19명이 25.7%, 20-49명이 28.1%, 그리고 50명 이상이 4.8%임.

□ 종사자 지위

- 종사자 지위로는 ㉠ 자영업자 ㉡ 무급가족 종사자 ㉢ 상용근로자 ㉣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기타종사자가 있으며, 그 의미는 아래와 같음.

- 자영업자: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경영하는 자
-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1/3이상 종사하는 자
-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 기타종사자: ①기본급 등 일정한 급여 없이 주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사업체에 지급하는 자) ② 그 외기타 종사자

출처: 2014년 전국사업체조사 조사표(전국)

<표 6> '늘찬 배달업' 종사자 지위 (전국, 서울)

행정구역	전체 종사자수	자영업자	무급가족	상용	임시 및 일용	기타
전국	8,265 100.0%	1,142 13.8%	204 2.5%	1,271 15.4%	1,580 19.1%	4,068 49.2%
서울특별시	3,571 100.0%	497 13.9%	87 2.4%	715 20.0%	884 24.8%	1,388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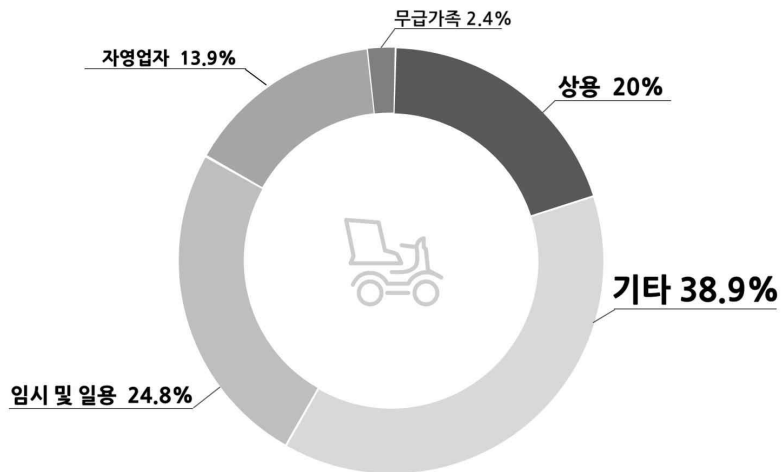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13)

- 전국 늘찬 배달업 종사자의 종사자 지위는 자영업자 13.8%, 무급가족종사자 2.5%, 상용근로자 15.4%, 임시 및 일용근로자 19.1%, 그리고 기타종사자가 49.2%로 나타남.

1) 개인사업등록자라 할지라도 지사, 영업소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영업소 등의 기타종사자라고 함.

- 즉, 늘찬 배달업 종사자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배달 건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 받거나 중개업체 등을 통해서 배달을 하는 자영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1] '늘찬 배달업' 종사자 지위 분포 (서울)



- 서울지역 늘찬 배달업 종사자 중 38.9%가 기타종사자이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24.8%, 상용근로자가 20%, 자영업자가 13.9%, 무급가족종사자가 2.4%임.
- 서울지역은 기타종사자의 비중(38.9%)이 전국(49.2%)에 비해 10.3%p 적고, 대신 임시 및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음.

2. 배달업 노동시장과 실태

1) 배달업 종사자 근로실태 - 지역고용조사(전국)

(1) 분석 대상

- 이 절에서 말하는 배달업 종사자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분류 중 소분류‘배달원(922)’임.

<표 7>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배달업 종사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명
9			단순노무 종사자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2	배달원

자료: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 배달업 종사자의 근로실태 분석 자료로는 ‘201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를 사용했으며, 그 중에서도 직업 분류 소분류까지 제공하는 B형을 사용했음.²⁾
 - ‘201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서의 배달원 수는 2,742명이며, 그 중 경제활동 인구는 2,676명임. 이는 2013년 전국 사업체 조사 ‘늘찬 배달업’ 종사자 수인 8,265명에 비해 다소 차이가 있음.

2)단, 지역고용조사 B형은 행정구역 분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음. 따라서 이 절에서는 전국에 있는 배달원의 근로실태를 분석했음.

(2) 배달업 종사자의 근로실태

□ 성별 및 연령

〈표 8〉 배달원 연령분포 (전국)

		청년층				비 청년층				전체
		15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35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남성	빈도	52	111	145	261	302	739	578	249	2437
	%	1.9%	4.0%	5.3%	9.5%	11.0%	27.0%	21.1%	9.1%	88.9%
여성	빈도	2	4	3	7	23	123	105	38	305
	%	0.1%	0.1%	0.1%	0.3%	0.8%	4.5%	3.8%	1.4%	11.1%
전체	빈도	54	115	148	268	325	862	683	287	2742
	%	2.0%	4.2%	5.4%	9.8%	11.9%	31.4%	24.9%	10.5%	100.0%

자료: 201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B형(통계청)

- 배달원 2,742명 중 대다수인 88.9%가 남성이고, 21.3%(585명)이 청년층이며, 그 중 여성은 청년 배달원 중 2.7%임.
- 다만 청년층 중에서도 30세-34세의 비중이 가장 높고(45.8%), 10대 비중은 2%에 불과함.
- 배달원 중에서는 청년층보다는 비청년층(35세-60세 이상)의 비중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30-44세와 45-60세 중장년층 비중이 높음(78.7%).

□ 종사자 지위

〈표 9〉 배달원 종사자 지위 (전국)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빈도	794	712	161	208	723	144	2,742
%	29.0%	26.0%	5.9%	7.6%	26.4%	5.3%	100.0%

자료: 201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B형(통계청)

- 배달원 종사자의 지위는 상용근로자(2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6.4%), 임시근로자(26%)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7.6%), 일용근로자(5.9%), 무급가족종사자(5.3%)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10〉 배달원 종사자 지위: 범주화 (전국)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 자	전체
배달원	빈도	794	873	931	144	2,742
	%	29.0%	31.8%	34.0%	5.3%	100.0%
청년층 배달원	빈도	183	279	81	42	585
	%	31.30%	47.70%	13.80%	7.20%	100.00%

자료: 201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B형(통계청)

- 상용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자영업자로 범주화했을 때, 비정규직(31.8%)과 자영업자(34.0%)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청년층 배달원 중 47.7%(585명)가 비정규직으로, 전체 배달원 비정규직 비중(31.8%)에 비해 비정규직 비중이 15.9%p 높았음. 이는 배달원 내부 구성에서 청년층의 위치가 더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함.

□ 학력

〈표 11〉 배달원 종사자 지위와 학력 분포 (전국)

		교육정도				전체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정규직	빈도	33	63	497	201	794
	%	4.2%	7.9%	62.6%	25.3%	100.0%
비정규직	빈도	72	134	534	133	873
	%	8.2%	15.3%	61.2%	15.2%	100.0%
자영업자	빈도	58	118	527	228	931
	%	6.2%	12.7%	56.6%	24.5%	100.0%
무급가족종사자	빈도	16	18	87	23	144
	%	11.1%	12.5%	60.4%	16.0%	100.0%
전체	빈도	179	333	1645	585	2742
	%	6.5%	12.1%	60.0%	21.3%	100.0%

자료: 201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B형(통계청)

- 배달원 중 고졸이 60%이고, 대졸은 21.3%, 중졸이 12.1%, 그리고 초졸이 6.5%로 고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 정규직 배달원은 고졸이 62.4%이고 대졸이상이 25.3%이며, 자영업자는 고졸이 56.6%이고 대졸이 24.5%임.
- 한편 비정규직 배달원은 고졸이 61.2%, 대졸이 15.2%, 중졸이 15.3%로 나타나 정규직과 자영업자에 비해 비정규직의 학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표 2-11〉 참조).

〈표 12〉 청년층 배달원 종사자 지위와 학력 분포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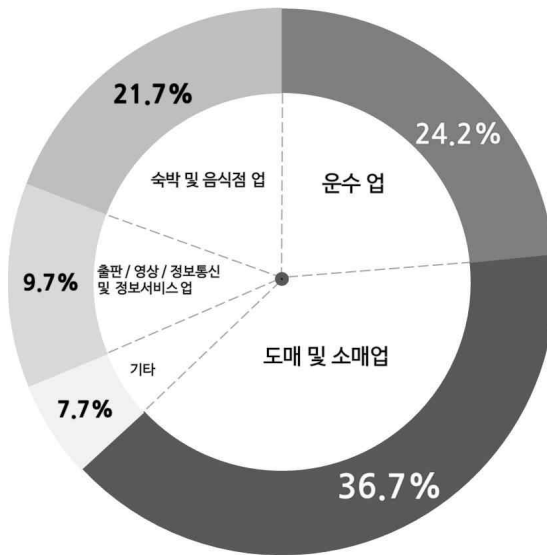
	초졸 이하-중졸		고졸		대졸이상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정규직	6	3.3%	106	57.9%	71	38.8%	183	100.0%
비정규직	51	18.3%	179	64.2%	49	17.6%	279	100.0%
자영업자	5	6.2%	43	53.1%	33	40.7%	81	100.0%
무급가족종사자	0	0.0%	28	66.7%	14	33.3%	42	100.0%
전체	62	10.6%	356	60.9%	167	28.5%	585	100.0%

자료: 201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B형(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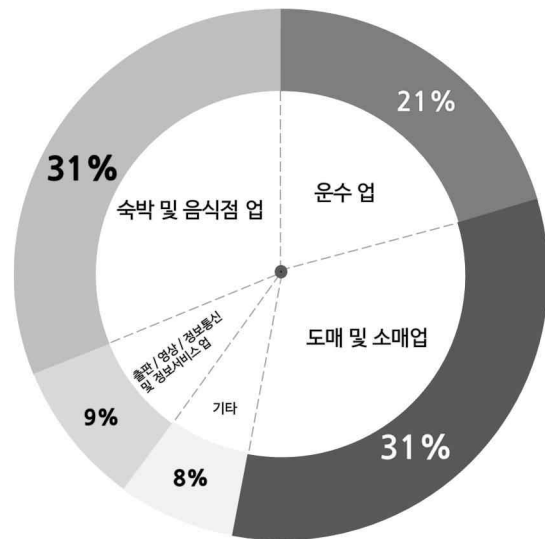
- 청년층 배달원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이 60.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졸이상이 28.5%, 초졸 이하-중졸이 10.5%임.
- 청년층 배달원 정규직 학력 분포는 고졸(57.9%) > 대졸이상(38.8%) > 초졸 이하-중졸(3.3%) 순이고, 비정규직 학력 분포는 고졸(64.2%) > 초졸 이하-중졸(18.3%) > 대졸이상(17.6%)임.
- 청년층 배달원 대졸 비중(28.5%)이 배달원 대졸 비중(21.3%)에 비해 7.2%p 높은 반면, 초졸 이하-중졸 비중(10.5%)은 배달원 비중(18.6%)에 비해 8.1%p 낮음. 따라서 청년층 배달원이 배달원 내부에서도 고학력화된 것을 알 수 있음.
- 정규직 청년층 배달원 대졸 이상 비중(38.8%)이 비정규직 청년 배달원(17.6%)에 비해 높고, 청년층 배달원 중에서도 정규직이 특히 고학력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종사 산업

[그림 2]³⁾



(좌) 배달원 종사 산업



(우) 청년층 배달원 종사 산업 (전국, 대분류)

○ 배달원은 산업 분류(대분류) 상 도매 및 소매업(36.7%) > 운수업(24.2%) > 숙박 및 음식점업(21.7%)에 주로 종사하고 있음.

- 한편 청년층 배달원은 숙박 및 음식점업(31%) = 도매 및 소매업(31%) > 운수업(21%)에 종사 중이며, 약 2/3의 청년층 배달업 종사자들이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고 있음.

3) 자료: 201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B형(통계청)

* 주: 기타는 제조·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임.

□ 임금

〈표 13〉 배달원 노동조건: 평균 임금, 주당 근로시간, 시급 (전국)

		평균 임금 (만원)	주당 평균 근로시간 (시간)	시급 (원)
배달원	정규직	214	50	10,760
	비정규직	129	43	7,488
청년층 배달원	정규직	185	49	9,527
	비정규직	125	44	7,077

자료: 201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B형(통계청)

* 주: 시급= 평균임금/(주당 근로시간x4)

- 정규직 배달원은 주당 약 50시간을 일하고, 평균 214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시급으로는 약 10,760원을 받고 있음.
 - 비정규직 배달원은 주당 약 43시간을 일하고, 평균 129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시급은 약 7,488원을 받음.
- 청년층 정규직 배달원은 주당 49시간을 일하고, 임금으로 약 185만원을 받으며, 시급으로는 약 9,527원을 받음.
 - 청년층 비정규직 배달원은 주당 44시간 일하고, 평균 125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시급으로는 약 7,077원을 받음.
- 배달원 중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큼. 배달원 정규직 시급과 비정규직 시급 간 차이는 3,272원이고, 청년층 배달원 정규직 시급과 비정규직 시급 간 차이는 2450원임.
- 특히 청년층은 배달원 중에서도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규직 배달원의 시급은 10,760원이나 청년층 정규직 배달원이 시급은 9,527원이고, 비정규직 배달원 시급은 7,488원이나 청년층 비정규직 배달원 시급은 7,077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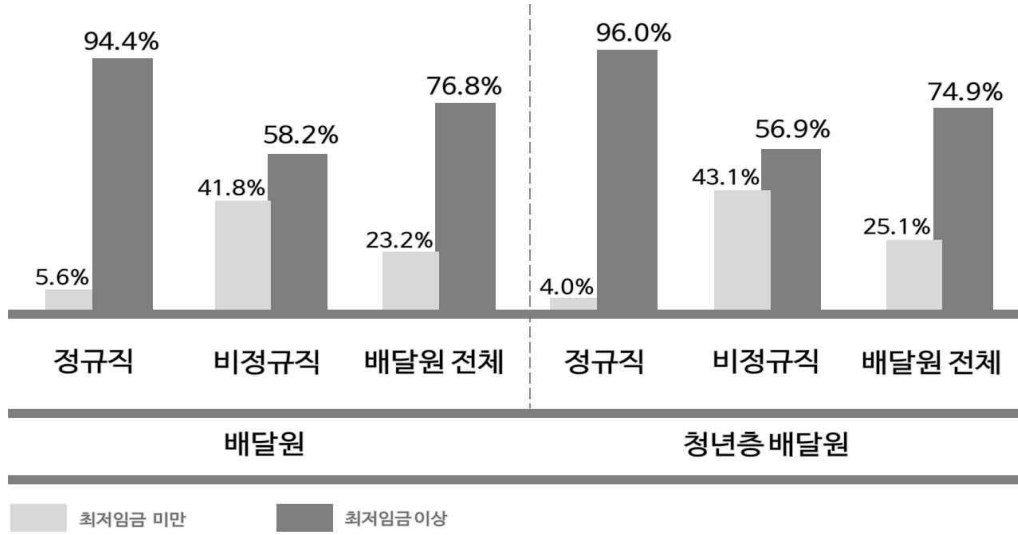
〈표 14〉 배달원 임금 분포 (전국)

		100만원 미만		100만원 -199만원		200만원 -299만원		300만원 이상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배달원	정규직	12	1.6%	292	38.3%	314	41.2%	145	19.0%	763	100%
	비정규직	208	28.9%	386	53.6%	113	15.7%	13	1.8%	720	100%
	배달원	220	14.8%	678	45.7%	427	28.8%	158	10.7%	1483	100%
청년층 배달원	정규직	1	0.6%	104	58.8%	60	33.9%	12	6.8%	177	100%
	비정규직	63	30.1%	112	53.6%	31	14.8%	3	1.4%	209	100%
	청년층 배달원	64	16.6%	216	56.0%	91	23.6%	15	3.9%	386	100%

자료: 201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B형(통계청)

- 배달원 임금근로자 중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배달원의 비중이 60.5%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은 82.5%가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음.
- 정규직은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39.9%이고, 2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60.1%로 비정규직에 비해 소득구간이 높음
- 청년층 배달원 임금근로자 중 72.6%가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어, 청년층 배달원이 배달원 중에서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청년층 배달원 중 100만원-199만원의 임금을 받는 비중이 정규직은 58.8%, 비정규직은 53.6%임

[그림 3]⁴) [배달원 최저임금(월급) 위반여부 실태 추정(전국)]



- 배달원 중 23.2%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청년층 배달원 중에서는 25.1%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음.
- 정규직 배달원은 대부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으나, 비정규직은 41.8%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음. 특히 비정규직 청년층 배달원 중 43.1%가 최저임금 미만임.

4) 자료: 201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B형(통계청)

* 주: 1)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 1,166,220원으로 설정하였음.

2) 실제 배달원의 임금은 시간과 건별 수수료로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최저임금 위반여부와 다를 수 있음.

〈표 15〉 배달원 종사 산업별 평균 임금과 근로시간 (전국)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배달원 전체	임금	190	129	215	159	168	121	214	129
	근로시간	50	41	55	49	60	47	50	43
청년층 배달원	임금	180	142	223	173	163	100	185	125
	근로시간	49	46	54	49	54	42	49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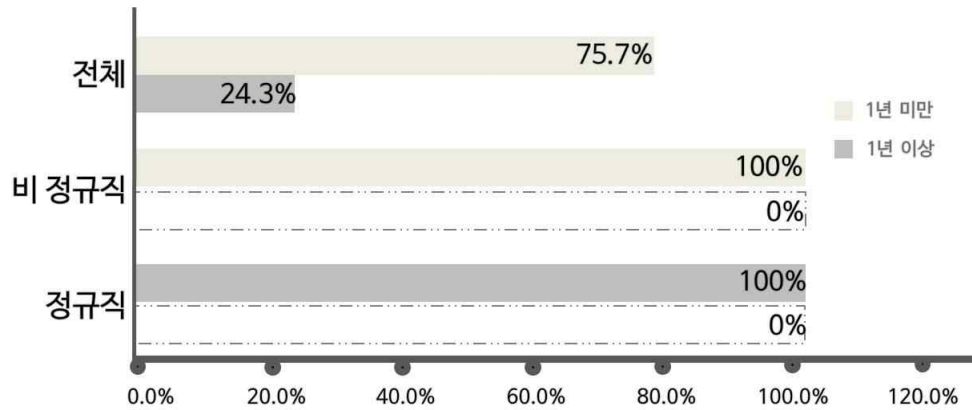
자료: 201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B형(통계청)

*주: 근로시간은 주업 근로시간 기준임.

- 배달원이 종사하는 산업 중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인 도매 및 소매업·운수업·숙박 및 음식점업 간 평균 근로시간과 임금을 비교했을 때,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옴.
 - 도매 및 소매업 종사 배달원은 정규직이 평균 월 190만원의 임금을 받고 주당 50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평균 월 129만원의 임금을 받고 주당 41시간 일하고 있음.
 - 운수업 종사 배달원은 정규직이 평균 월 218만원의 임금을 받고 주당 55시간 일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월 159만원의 임금을 받고 주당 49시간 일하고 있음.
 -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 배달원은 정규직이 월 168만원을 받고 주당 60시간 일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월 121만원을 받으며 주당 47시간 일하고 있음.
-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임금 근로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음. 정규직은 주당 60시간을 일하는 반면, 임금은 배달원 정규직 평균 임금인 214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168만원에 불과함.
- 정규직 청년층 배달원의 평균 임금은 185만원이고 주당 근로시간은 49시간이며, 비정규직 청년층 배달원의 평균 임금은 125만원이고 주당 근로시간은 44시간임.
 - 청년층 배달원 역시 숙박 및 음식점 업에 종사하는 배달원이 저임금을 받고 있음. 하지만 노동시간은 다른 산업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 고용계약 기간

[그림 4] 배달원 고용계약기간



자료: 201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B형(통계청)

○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9.4%(140명)이었음.

-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중 1년 미만으로 계약한 배달업 종사자가 75.7%였으며, 정규직은 모두 1년 이상으로 계약했으나 비정규직은 모두 1년 미만으로 계약했음.

□ 근속기간

<표 16> 배달원/청년층 배달원 종사자 지위별 근속 기간

		종사자 지위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	평균(년)
배달원 전체	정규직		73.4%	16.8%	5.4%	4.4%	7.1
	비정규직		77.3%	4.5%	0.7%	17.5%	2.7
	자영업자		67.8%	22.6%	6.0%	3.7%	8.4
	무급가족종사자		63.2%	18.8%	8.3%	9.7%	8.7
	배달원		72.2%	14.9%	4.3%	8.6%	6.4
청년층 배달원	정규직		94.5%	2.2%	0.0%	3.3%	2.9
	비정규직		74.6%	0.4%	0.0%	25.1%	0.8
	자영업자		93.8%	3.7%	0.0%	2.5%	3.3
	무급가족종사자		83.3%	4.8%	0.0%	11.9%	3.2
	청년층 배달원		84.1%	1.7%	0.0%	14.2%	2.1

자료: 201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B형(통계청)

○ 배달원의 평균 근속은 6.4년이고, 정규직 배달원의 평균 근속은 7.1년이며, 비정규직은 2.7년, 자영업자가 8.4년, 무급가족종사자가 8.7년임.

- 청년층 배달원 평균 근속은 2.1년이고, 정규직 평균 근속이 2.9년, 비정규직은 0.8년, 자영업자가 3.3년, 무급가족종사자가 3.2년으로 나타남.
- 정규직 배달원에 비해 비정규직 배달원의 근속이 짧고, 특히 청년층 배달원의 근속이 배달원 중에서도 매우 짧음.
- 배달원 중 근속 1년 미만 배달원이 72.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77.3%가 평균 근속 1년 미만임.
- 비정규직은 3년 이상 근속자 비율이 17.5%로, 근속 기간 편차가 큰 편임.
- 청년층 배달원 중 84.1%가 근속기간 1년 미만이고, 정규직과 자영업자의 경우 각각 94.5%, 93.8%가 근속기간 1년 미만으로 나타남.
- 청년층 배달원 역시 비정규직 근속기간 1년 미만이 74.6%고, 3년 이상 근속은 25.1%로 근속 기간 편차가 컸음.

2) 서울지역 배달원 구인구직 실태 - 서울지역 배달아르바이트 동향

(1) 분석대상

- 서울시 배달 종사자의 근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는 알바천국에서 제공한 <서울지역 배달아르바이트 동향> 원자료를 사용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자료 기간: 2015.01.01. - 2015.06.30.
- 대상: 서울지역 만 15세-만 34세 배달 아르바이트 희망자 (이력서 등록) 서울지역 만 15세-만 34세 배달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 계약형태: 아르바이트/정규직/계약직/파견직/인턴직/위촉직/병역특례 (중복선택)
- 직종: 원동기 배달/도보 배달/방문 배달/신문 배달/우유 배달/음식점 배달/치킨 배달/피자 배달 /꽃 배달

(2) 서울지역 배달원 구인구직 실태

□ 연령

<표 17> 알바천국 이력서 등록 건수: 연령 및 직종(서울시)

직종	연령				전체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원동기배달	81 2.0%	1,541 37.3%	1,631 39.5%	878 21.3%	4,131 100.0%
도보배달	53 4.9%	366 33.7%	427 39.3%	240 22.1%	1,086 100.0%
방문배달	29 2.6%	328 29.8%	424 38.5%	320 29.1%	1,101 100.0%
신문배달	61 8.1%	303 40.5%	240 32.0%	145 19.4%	749 100.0%
우유배달	48 6.5%	277 37.7%	237 32.2%	173 23.5%	735 100.0%
음식점배달	61 3.3%	713 38.9%	678 36.9%	383 20.9%	1,835 100.0%
치킨배달	86 4.1%	995 46.9%	738 34.8%	302 14.2%	2,121 100.0%
피자배달	72 3.6%	916 46.2%	712 35.9%	282 14.2%	1,982 100.0%
꽃 배달	13 3.0%	139 31.7%	180 41.1%	106 24.2%	438 100.0%
전체	504 3.6%	5,578 39.3%	5,267 37.1%	2,829 20.0%	14,178 100.0%

자료: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동향 (알바천국, 2015)

- 알바천국에 배달 직종으로 이력서를 등록한 구직자는 총 14,178명이며 20-24세가

39.3%로 가장 비중이 많고 그 다음으로 25-29세가 37.1%, 30-34세가 20%, 15-19세는 3.6%로 가장 비중이 낮음. 즉, 배달원 일자리를 가장 많이 구하는 연령대는 20대임.

〈표 18〉 알바천국 채용공고 등록 건수: 연령 및 직종(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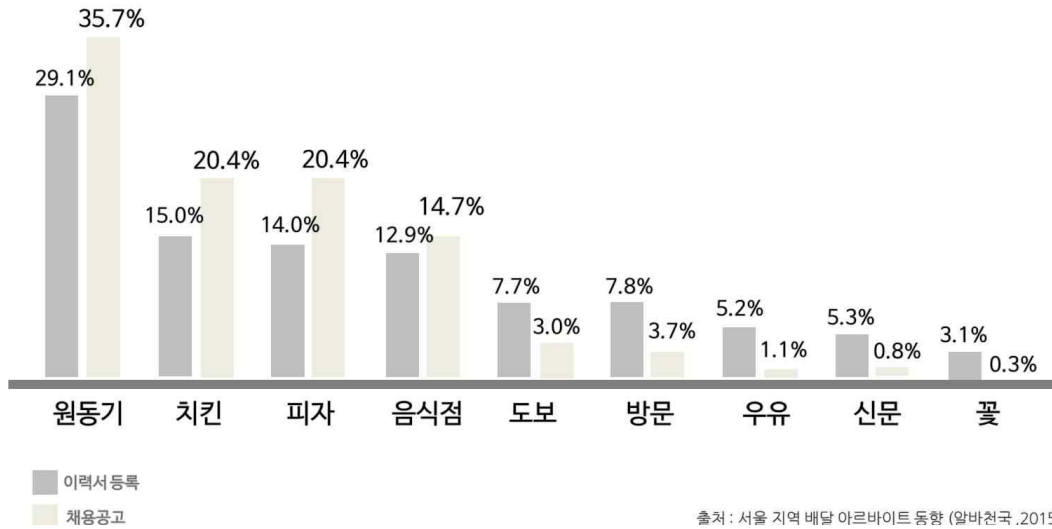
직종	연령				전체
	15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원동기배달	3,882 45.0%	4,086 47.3%	284 3.3%	424 4.9%	8,676 100.0%
도보배달	96 13.1%	484 65.9%	74 10.1%	81 11.0%	735 100.0%
방문배달	186 20.8%	556 62.3%	62 6.9%	89 10.0%	893 100.0%
신문배달	0 0.0%	176 86.3%	16 7.8%	12 5.9%	204 100.0%
우유배달	0 0.0%	218 78.7%	36 13.0%	23 8.3%	277 100.0%
음식점배달	1,221 34.2%	2,080 58.3%	197 5.5%	68 1.9%	3,566 100.0%
치킨배달	1,176 23.7%	3,363 67.8%	372 7.5%	49 1.0%	4,960 100.0%
피자배달	2,715 55.7%	2,091 42.9%	58 1.2%	8 0.2%	4,872 100.0%
꽃 배달	0 0.0%	46 71.9%	6 9.4%	12 18.8%	64 100.0%
전체	8,055 38.9%	11,020 53.3%	908 4.4%	698 3.4%	20,681 100.0%

자료: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동향 (알바천국, 2015)

- 한편, 배달원 채용공고(20,681건)에서는 15세-19세 비중이 38.9%로 등록 이력서(3.6%)보다 35.3%p 높음. 그리고 20세-24세 비중이 53.3%로 등록 이력서(39.3%)에 비해 14.0%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5세-29세(4.4%)는 등록 이력서(37.1%)에 비해 32.7%p 낮고, 30-34세(3.4%)는 등록 이력서(20%)에 비해 30세-34세의 경우, 등록 이력서에 비해 16.6%p 낮음.
- 구인구직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고 있음. 고용사용주들은 비교적 어린 연령대(10대~20대 초반)를 선호하는 반면, 20대 초중반~30대 중반의 구직자들이 많은 상황임.

□ 직종

[그림 5] 알바천국 직종별 비율: 등록 이력서, 채용공고



- 직종별로 이력서 등록 비중을 보면, 원동기 배달이 29.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치킨배달(15.0%), 피자배달(14.0%), 그리고 음식점배달(12.9%)임.
- 한편, 알바천국 등록된 채용공고에 나타난 구인 직종을 살펴보면, 원동기배달 비중이 35.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엔 치킨배달(20.4%), 피자배달(20.4%), 그리고 음식점배달(14.7%)임. 이는 이력서 등록 비중 추세와 같음.
- 하지만 원동기 배달·음식점 배달·치킨 배달·피자 배달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보다 구인하는 고용사용주 비중이 더 높고, 한편 도보 배달·방문 배달·신문 배달·우유 배달·꽃 배달 등은 구직자 비중이 더 높음. 직종에서도 인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있는 상황임.

□ 고용형태

<표 19> 알바천국 채용공고 등록 건수와 비율: 연령별 고용형태

	15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아르바이트	6,346 68.4%	8,921 68.1%	632 57.2%	278 36.3%
정규직	2,060 22.2%	2,731 20.8%	297 26.9%	87 11.4%
계약직	762 8.2%	920 7.0%	120 10.9%	391 51.0%
파견직	44 0.5%	348 2.7%	20 1.8%	0 0.0%
기타	64 0.7%	180 1.4%	36 3.3%	10 1.3%

자료: 서울지역 배달아르바이트 동향 (알바천국,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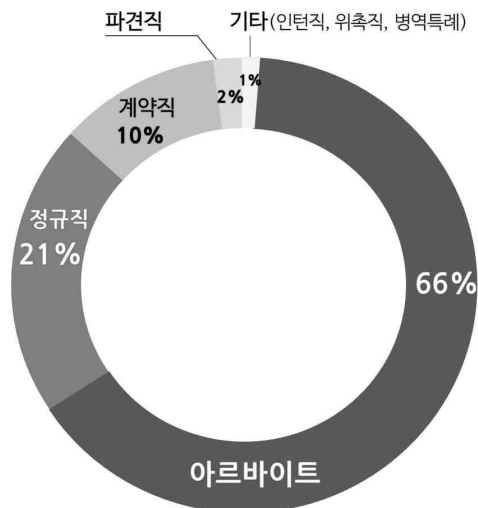
* 주: 기타는 인턴직, 위촉직, 병역특례임.

○ 연령별 고용형태 양상을 살펴봤을 때, 모든 연령대에서 아르바이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나, 연령대 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임.

- 15세-19세는 아르바이트(68.4%), 정규직(22.2%), 계약직(8.2)이고, 20세-24세는 아르바이트(68.1%), 정규직(20.8%), 계약직(7.0%)이며, 25세-29세는 아르바이트(57.2%), 정규직(26.9%), 계약직(10.9%)임.

- 한편 30세-34세는 계약직(51%), 아르바이트(36.3%), 정규직(11.4%) 순으로 나타남.

[그림 6] 알바천국 채용 공고 등록 비율: 고용형태



출처: 서울 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동향 (알바천국, 2015)

- 채용공고 중 아르바이트 채용 비율이 66%로 가장 높고, 정규직이 21%, 계약직이 10%임.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그리고 파견 직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봤을 때 배달 구인의 78%가 비정규직 채용이었음.

□ 근무기간

〈표 20〉 알바천국 채용공고 등록 건수와 비율: 근무기간 및 고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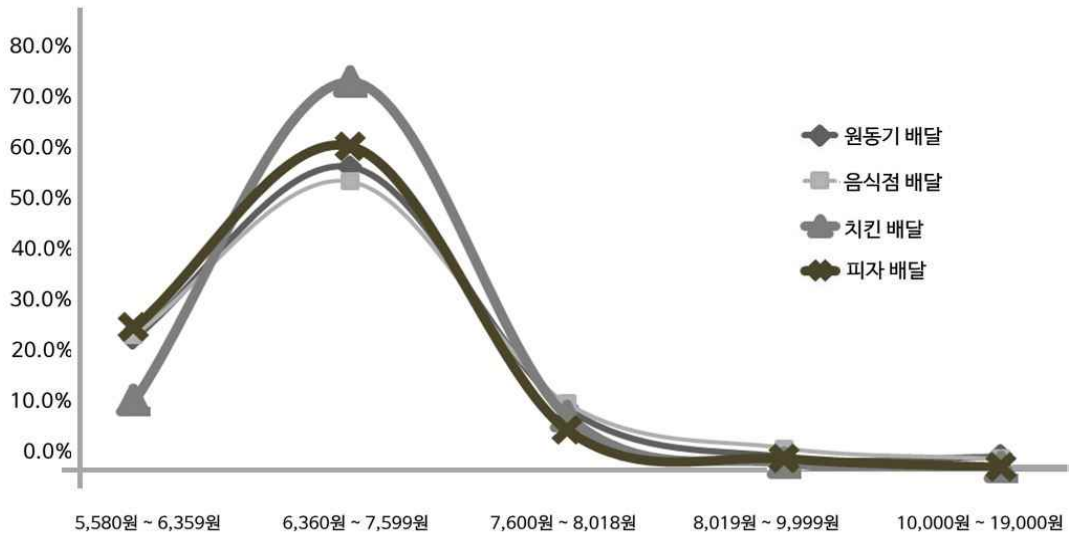
	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기타	전체
1주일 이하~1개월	109 0.7%	9 0.2%	7 0.3%	6 1.5%	18 6.2%	149 0.6%
1개월~3개월	1,399 8.6%	334 6.5%	58 2.6%	32 7.8%	64 22.1%	1,887 7.8%
3개월~6개월	5,593 34.6%	1,510 29.2%	780 35.6%	159 38.6%	57 19.7%	8,099 33.4%
6개월~1년	2,705 16.7%	743 14.4%	164 7.5%	36 8.7%	110 37.9%	3,758 15.5%
1년 이상	691 4.3%	265 5.1%	566 25.8%	0 0.0%	32 11.0%	1,554 6.4%
기간 협의	5,680 35.1%	2,314 44.7%	618 28.2%	179 43.4%	9 3.1%	8,800 36.3%
전체	16,177 100.0%	5,175 100.0%	2,193 100.0%	412 100.0%	290 100.0%	24,247 100.0%

자료: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동향 (알바천국, 2015)

- 근무기간은 3개월~6개월과 기간협의를 비중이 가장 높고, 1년 이상은 6.4%에 불과함.
 -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명시된 채용공고가 전체의 57.3%로, 2014 지역고용조사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비중(75.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기간 협의’는 고용사용주와 근로자의 관계에 따라서 근무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상 계약 기간 1년 미만의 비중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됨 (〈표 2-20〉 참조).

□ 시급⁵⁾

[그림 7] 알바천국 채용공고 등록 시급 분포도: 직종별



- 알바천국 배달 아르바이트 공고는 총 21,918건이고, 평균 시급은 6,836원임.
또한 주요 직종인 원동기배달 · 음식점배달 · 치킨배달 · 피자배달의 시급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6,360원-7,599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7] 참조)

5) <알바천국의 서울지역 배달아르바이트 동향>원자료 시급 분포는 총 5그룹이며, 각 그룹 기준은 아래와 같음.

- 1그룹: '5,580원~6,359원까지' [최저시급 - 노동자 정액 급여 50% 시급]
- 2그룹: '6,360원~7,599원까지' [정책 시급 - 노동자 평균 임금 50% 시급]
- 3그룹: '7,600원~8,018원까지' [평균 시급 50%- 중기 제조업 노임단가]
- 4그룹: '8,019원~9,999원까지' [노임 단가 - 민주노총 요구안]
- 5그룹: '10,000원~19,000원까지' [노동계 요구안 이상 금액]

〈표 21〉 알바천국 채용공고 등록 시급 분포: 주요직종별

직종	시급	비율	직종	시급	비율
원동기 배달	5,580원-6,359원	25.1%	음식점 배달	5,580원-6,359원	30.5%
	6,360원-7,599원	57.9%		6,360원-7,599원	51.2%
	7,600원-8,018원	11.8%		7,600원-8,018원	6.8%
	8,019원-9,999원	2.5%		8,019원-9,999원	4.4%
	10,000원-19,000원	2.6%		10,000원-19,000원	7.2%
피자 배달	5,580원-6,359원	27.4%	치킨 배달	5,580원-6,359원	13.3%
	6,360원-7,599원	62.0%		6,360원-7,599원	74.2%
	7,600원-8,018원	7.8%		7,600원-8,018원	10.4%
	8,019원-9,999원	2.3%		8,019원-9,999원	1.4%
	10,000원-19,000원	0.6%		10,000원-19,000원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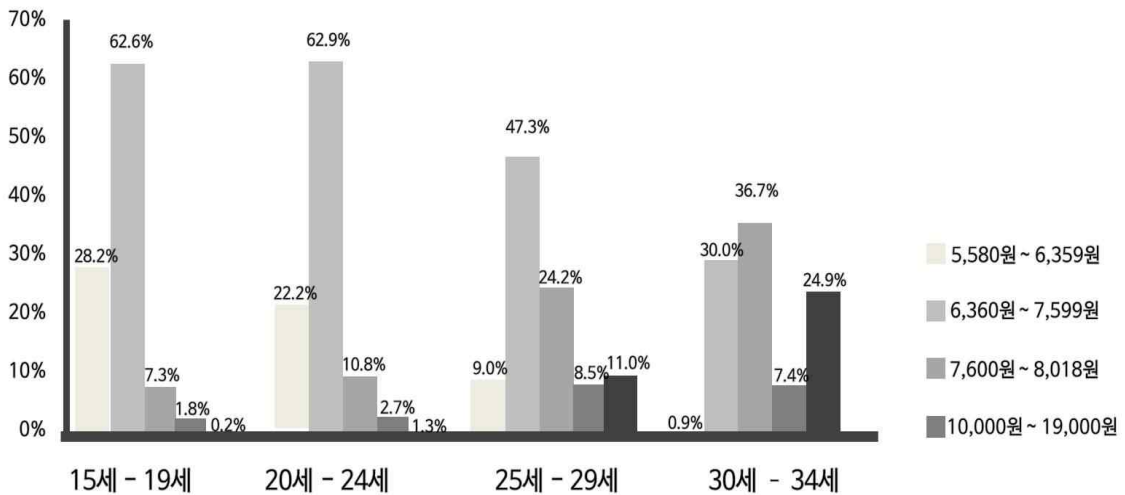
자료: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동향(알바천국, 2015)

○ 알바천국 채용공고 등록 시급 분포를 주요 직종별로 살펴봤을 때 원동기 배달에 비해 치킨 배달·음식점 배달·피자 배달의 시급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6,360원-7,599원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원동기 배달은 57.9%인 한편 피자 배달은 62.0%·치킨배달은 74.2%임. 음식점 배달은 51.2%이나 대신 5,580 원임.

- 6,359원의 비중이 30.5%로 주요 직종 중에서 가장 높음.

[그림 8] 알바천국 채용공고 등록 시급 분포도: 연령별



자료: 서울시 배달 아르바이트 동향 (알바천국, 2015)

- 연령대에 따라 시급 분포 양상이 다름. 연령대가 높을수록 시급을 많이 받음.
 - 15세-19세의 시급 분포는 6,360원-7,599원(62.6%) ▷ 5,580원-6,359원(28.2%)로 나타남.
 - 20세-24세는 6,360원-7,599원(62.9%) ▷ 5,580원-6,359원(22.2%) ▷ 7,600원~8,018원(10.8%)로, 15세-19세에 비해 소득구간이 약간 높아졌음.
 - 한편 25세-29세는 6,360원-7,599원(47.3%) ▷ 7,600원-8,018원(24.2%) ▷ 10,000원-19,000원(11%)임.
 - 30-34세는 6,360원-7,599원(30.0%) ▷ 8,019원-9,999원(36.9%) ▷ 10,000원~19,000원 (24.9%)으로, 소득구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음.
- 고용형태별로 시급 분포를 봤을 때, 아르바이트와 정규직보다 계약직과 파견직 시급이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와 정규직은 6,360원-7,599원이 가장 많은 약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계약직은 6,360원-7,599원과 7,600원-8,018원이 약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580원-6,359원의 비중은 20.8%이고, 파견직은 6,360원-7,599원의 비중(52.9%)이 가장 높음.

〈표 22〉 알바천국 채용공고 등록 시급 분포:
고

	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기타	전체
5,580원-6,359원	3,699 22.9%	1,434 27.7%	456 20.8%	36 8.7%	8 2.8%	5,633 23.2%
6,360원-7,599원	10,589 65.5%	2,996 57.9%	975 44.5%	218 52.9%	22 7.6%	14,800 61.0%
7,600원-8,018원	1,355 8.4%	513 9.9%	459 20.9%	103 25.0%	209 72.1%	2,639 10.9%
8,019원-9,999원	309 1.9%	182 3.5%	110 5.0%	49 11.9%	21 7.2%	671 2.8%
10,000원-19,000원	225 1.4%	50 1.0%	193 8.8%	6 1.5%	30 10.3%	504 2.1%
전체	16,177 100.0%	5,175 100.0%	2,193 100.0%	412 100.0%	290 100.0%	24,247 100.0%

자료: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동향 (알바천국, 2015)